

**라틴아메리카 문화 도시
사례 분석 연구**

서 문

우리 국제문화정책은 선진국 중심의 정책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정책으로 성장해왔고 일방적인 홍보 위주의 정책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 정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만 설치되었던 해외문화원이 현재는 영국, 독일 등의 유럽 주요 국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에도 설치되었고 2006년 말에는 아르헨티나에도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의 대표 사례인 문화동반자 사업의 대상 지역도 아시아에서 2007년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확장되었습니다.

정책 방향도 바뀌고 정책 대상도 확대되어 국제적 문화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각 문화권과 각 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간 해외문화정책 연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에 한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속성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중남미 문화원의 개원은 한국 문화를 중남미 지역에 전파할 창구의 개설을 의미한다면 이 연구는 중남미 국가들의 문화적 경험을 한국이 흡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주요 3국의 국가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화도시의 사례를 연구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비록 객관적 여러 제약으로 인해 연구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미지의 문화권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 정책에 대한 첫 연구 성과인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우리 문화 정책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작게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는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멕시코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 브라질 연방문화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빛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에 협조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송 재 호

연구책임 : 김 규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 정 훈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문가)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참여 정부 출범 이래 한국에서 ‘문화 도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역의 문화도시 사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도시들은 문화다양성의 보고로 현대세계문화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음.
- 이 연구는 도시발전전략으로 문화전략을 채택한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라틴아메리카를 문화적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고 각 문화권을 대표하는 나라를 선정하였음. 원주민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 백인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아르헨티나, 흑인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브라질 등 3국이 선정되었고 각 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멕시코의 과나화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살바도르 등이 선정되었음.
- 라틴아메리카 주요 삼국의 국가문화기관과 지방정부문화기관의 책임자들을 인터뷰하였고 문화정책이 담긴 공식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국가와 도시의 문화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참고하였음.

(3) 연구의 기대효과

-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문화정책과 문화 도시 사례에 대한 첫 연구로서 한국의 도시들이 다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켜가는 데 소중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2)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국가문화정책

(1) 멕시코의 국가문화정책

- 멕시코는 1988년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으로 문화정책의 1차 전환기를 맞았고 2000년 7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문화정책의 2차 전환기를 맞았음.
- 멕시코 국가문화기관의 명칭은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연방정부의 공공교육부의 권한을 분산시킨 행정 기구로 출범하였음. 2007년 멕시코 연방정부총지출예산에서 문화예술지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4%로 추정되며 2000년 민주정부 출범이래 문화예산은 총액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음.
- 멕시코의 국가문화정책은 <국가문화계획 2001~2006>에 잘 드러나 있음. 이 문서에서 ‘문화계획 수립 5대 원칙’으로 ① 창작·표현의 자유의 완전 보장 ② 문화 다양성의 재확인 ③ 시민참여강화 ④ 문화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⑤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균형적 문화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멕시코의 지역문화정책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총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 간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음.

(2) 아르헨티나의 국가문화정책

- 2001년 국가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정치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2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탈피하였고 국가문화정책도 전기를 맞았음.
- 아르헨티나 국가문화기관의 명칭은 아르헨티나 연방 문화원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문화예산의 비율은 2006년의 경우 0.23%로 키르치네르 대통령 집권 이후 총액 면에서는 꾸준히 증가해왔음.

- 아르헨티나는 2006년 제1차 아르헨티나 문화 총회를 개최해 <마르 델 플라타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중장기 국가문화전략인 <국가문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연방문화원의 <2005년도 연례보고서>는 문화정책의 핵심의제로 ① 문화다양성 보호 ② 문화기본권의 연방전체로 확대 ③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④ 문화 분야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지역문화정책은 연방문화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문화원 예산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비교하여 총액 기준으로도 적다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문화진흥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임.

(3) 브라질의 국가문화정책

- 2003년 룰라 대통령의 취임으로 브라질 문화정책은 큰 전기를 맞게 되었음. 브라질 정부는 현실주의적 경제정책과 진보적인 사회정책(문화정책 포함)을 배합해왔는데 룰라 행정부의 문화 분야 최우선 과제는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었음.
- 브라질국가문화기관의 명칭은 브라질 연방 문화부로 행정부의 부서임. 문화예산은 룰라 대통령 집권 1기(2003~2006)동안 총액과 비율 양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3년 집권 원년 연방정부 총예산의 0.2%에 불과했으나 2006년 0.6%, 2007년 현재 0.7%로 증가하였음.
- 브라질 문화정책은 집권 초기에 발표한 ‘문화행정 신 패러다임 6개 원리’와 ‘3차원적 문화개념’과 2007년 브라질 문화행정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발전문화계획>에 잘 드러나 있음.
‘3차원적 문화 개념’을 통해 문화를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고, 연방·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여 국가전체의 중장기적 문화계획 <국가문화계획>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국가교육제도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 ‘국가문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음.
- 브라질의 지역문화정책은 연방문화부의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전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연방문화부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역적 격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북동부 지역을 비롯한 낙후한 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 3국 문화정책 비교

국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문화		원주민 라틴아메리카	백인 라틴아메리카	흑인 라틴아메리카
연방 문화 정책	기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아르헨티나 연방 문화원	브라질 연방 문화부
	기관 위상	연방정부 공공교육부의 자율적 행정기구	대통령 직속 기구	행정부의 부서
	예산 (총 지출 대비)	2007년도 0.34%	2006년도 0.23%	2007년도 0.7%
	정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계획 2001~2006〉 - 문화정책 작성 5대 원칙 - 문화 비전 - 문화 미션 - 11대 기본과제 - 10대 영역별 세부과제 - 4대 신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 텔 플라타 선언〉 - 전문 - 제안 ○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 - 5대 종합 목표 - 5대 정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국가발전문화계획〉 - 문화행정 신 패러다임 6개 원리 - 3차원적 문화개념 - 10대 전략 행동 - 7대 추진 과제
지역 문화 정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총국의 지역문화총국 ○ 지방 문화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문화원 ○ 지방 문화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문화부 ○ 지방 문화담당 기관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통합 ○ 연방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직·간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문화원 주도 로 문화기본권의 연방전체로 확대 ○ 문화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문화부 주도 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 문화를 통한 경제 발전

3) 라틴아메리카 문화 도시 사례

(1) 멕시코의 과나화토

-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과나화토 시는 ‘세르반테스의 도시’, 전통 악단 ‘에스투디안띠나의 도시’로 정체성을 형성하였음.
- 과나화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한 세르반테스 막간극 행사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적절하게 협력하고 지원하여 ‘세르반테스 국제 축제’가 탄생하였음.
- 과나화토 시청 문화국은 창의적인 문화시정으로 도시 전체를 문화 공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 2001년 국가 위기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과 예술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시민 공동체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였음. 시 문화부는 탱고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탱고의 발상지’라는 시의 문화 정체성을 복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화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시 문화부는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펼쳐 왔음. 독창적이고 참신한 문화사업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되살리고 비문화공간을 문화공간을 바꾸어왔으며 문화공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등 시민생활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었음.

(3) 브라질의 살바도르

- 살바도르 시는 ‘아프로 브라질 문화의 요람’으로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는 지역이며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현대화를 주도하

고 있는 도시이기도 함.

- 시정부는 문화적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빈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의 문화 공동체의 자발적 문화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펼치고 있음. 또한 시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표 2〉 라틴아메리카 3개 문화도시 개황 비교

도시 구분	과나화또	부에노스아이레스	살바도르
소개	○ 과나화또 주의 주도 ○ 인구 15만의 소도시	○ 아르헨티나 수도 ○ 인구 약 280만 명	○ 바이아 주의 주도 ○ 인구 약 245만 명
역사	○ 1546년 설립 ○ 스페인 부왕령 시대 광산업 중심지 ○ 1810년 멕시코 독립 전쟁 무대 ○ 1858년 자유파 임시 수도	○ 1536년 설립 ○ 1776년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령 수도 ○ 19세기 말~20세기 초 '남미의 파리'로 도시 개조	○ 1549년 설립 ○ 1549년~1763년 브라 질 수도 ○ 식민지 시대 사탕수 수 농업 중심지, 흑인 노예 수입 항구
문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1988) ○ 세르반테스 도시 ○ 축제의 도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후보(2008년결정) ○ 탕고의 도시 ○ 문화, 건축, 요리의 도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1985) ○ 아프리카브라질 문화의 탄생지

4)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론

(1)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정책 환경

- 정치 민주화, 중도 좌파 정부의 대거 집권으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불평등이 심각하며 교육수준이 열악한 곳으로 각 국은 불평등 해소와 교육발전 등을 국가주요의제로 삼고 있음.

-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통합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
- 민주화 운동의 진전은 문화 관련 시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문화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요구를 낳았음.
- 각 국은 세계화로 인한 문화정체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원리를 채택하였고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 교육발전 정책을 본격화하여 문화적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통합운동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켰음.

(2) 라틴아메리카 국가문화정책의 변화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문화에 대한 광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종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였음. 문화는 경제적·정치적·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 문화정책의 대전제는 ‘문화적 시민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국가개입주의 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정책을 극복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고 라틴아메리카 각 국은 문화 부문에서 국가의 민주적인 역할을 정립하였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각 국은 또한 문화행정의 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국가전체의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음.
- 각 국이 채택한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는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문화적 사회통합 등임.

(3) 라틴아메리카 도시문화정책의 형성

-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이 강화된 것은 도시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연방정부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가 맞물려서 이뤄

진 것임. 또한 집권 중도 좌파 세력은 시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문화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문화정책을 수립하였음.

- 라틴아메리카 각 도시들은 문화를 도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문화정책을 도시발전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기 시작하였음. 도시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는 국가문화정책의 주요 의제가 시의 현실에 적합하게 구체화한 것임.

(4)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현실

-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19세기 후반 근대화 초기에는 식민지 시대에 부흥했던 도시들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근대산업도시들이 급성장하였고 1980~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도시 내의 사회 공동체의 균열이 심화되고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라틴아메리카 도시 문화는 근대산업도시의 노동빈민층의 대중문화로 출발하여 보편적인 문화로 발전하였고 기원이 다양한 문화가 혼용되어 탄생한 ‘잡종문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의 제약조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국가 차원에서 정책, 예산, 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며 도시 차원에서는 정책, 예산, 기관, 문화인력, 관료주의, 치안 등이 제약 조건들임. 각 도시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5)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론-‘자생적 문화도시’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는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위기를 문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생적 문화도시’임.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은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한 여러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 개요

가. 시 정부의 역할

- 문화 행정의 주체로 주·연방정부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도시가 독자적 문화정책 수립·집행의 주체이자 국가문화정책 수립과정에 참가하는 일원)
- 국내 문화 교류의 주체이자 국제 문화 교류의 주체

나. 문화·문화정책의 역할

- 문화·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종합적 접근
(문화적·정치적·경제적·교육적 역할)
- 문화·문화정책은 도시발전전략의 핵심축

다. 문화 도시의 특징

- 자생적 문화 다양성의 존중
- 공공기관의 적절한 협력
- 창의적 문화시정
- 종합적 문화정책

라. 문화 정책의 핵심 의제

1) 문화발전 전략-문화 민주주의

- 문화행정의 민주주의(문화 행정의 시민참여)
- 문화향수의 민주주의(문화 재화·용역에 대한 보편적 접근)
- 문화생산·유통의 민주주의(시민 개인·공동체의 문화생산 활동 진흥, 문화 활동에 참가할 개인·공동체의 육성)

2) 문화발전방향 - '역동적 다문화주의'(현재의 문화 다양성의 존중을 넘어 문화 다양성을 계속 확대해가는 것)

- 문화 다양성(도시 문화정체성의 확대)
- 문화 고유성(도시 문화정체성의 강화)

3) 문화적 사회통합으로 도시발전

- 문화를 통한 정치발전(민주주의 심화)
-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
- 문화를 통한 교육발전

라. 전략의 궁극적 목표

- 시민의 삶과 문화가 혼연일체를 이루는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즉 문화=생활 전략

목 차

연구개요	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배경	3
2.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3 절 연구의 기대 효과	5
제 2 장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문화정책	7
제 1 절 멕시코의 국가문화정책	9
1. 멕시코 문화	9
2. 멕시코 문화정책의 역사	10
3. 멕시코 문화 정책	14
4. 멕시코 지역문화정책	22
제 2 절 아르헨티나의 국가문화정책	25
1. 아르헨티나 문화	25
2. 아르헨티나 문화정책의 역사	26
3. 아르헨티나 문화 정책	29
4. 아르헨티나 지역문화정책	36
제 3 절 브라질의 국가문화정책	38
1. 브라질 문화	38
2. 브라질 문화정책의 역사	40

3. 브라질 문화 정책	42
4. 브라질 지역문화정책	50
제 3 장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 사례	53
제 1 절 멕시코의 과나화토	55
1. 과나화토 개황	55
2. 과나화토 문화 정책	57
3.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61
4. 문화도시로서 과나화토	68
제 2 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69
1. 부에노스아이레스 개황	70
2.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 정책	71
3. 시 축제 및 문화행사	82
4. 문화도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	85
제 3 절 브라질의 살바도르	86
1. 살바도르 개황	86
2. 살바도르 문화 정책	87
3. 살바도르의 전통 행사	94
4. ‘신물의 집’ 사업	96
5. 문화도시로서 살바도르	96
제 4 장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론	99
제 1 절 라틴아메리카 도시문화정책의 형성	101
1.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정책 환경	101
2. 라틴아메리카 국가문화정책의 변화	87
3. 라틴아메리카 도시문화정책의 형성	90
제 2 절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	112
1.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현실	101

2.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론-‘자생적 문화도시’	123
제 5 장 결론-라틴아메리카에서 본 우리문화 도시 조성 전략 ..	128
참고문헌	133
주요인터뷰 대상자	136
Abstract	137
부 록	139

표 차례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 3국 문화정책 비교	
〈표 2〉 라틴아메리카 3개 문화도시 개황 비교	
〈표 2-1〉 멕시코 문화정책의 역사	
〈표 2-2〉 〈국가문화계획 2001~2006〉의 체계	
〈표 2-3〉 아르헨티나 문화정책의 역사	
〈표 2-4〉 〈마르 델 플라타 선언〉 전문	
〈표 2-5〉 5대 정책 영역과 세부 과제	
〈표 2-6〉 브라질 문화 정책의 역사	
〈표 2-7〉 10대 전략 행동	
〈표 2-8〉 7대 추진 과제	
〈표 3-1〉 과나화토 개황	
〈표 3-2〉 과나화토의 7대 추진과제와 주요 프로그램	
〈표 3-3〉 부에노스아이레스 개황	
〈표 3-4〉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8대 과제와 주요 프로그램	
〈표 3-5〉 살바도르 개황	
〈표 3-6〉 살바도르의 5대 추진과제와 주요 프로그램	

그림 차례

[그림 1] 3차원적 문화개념	
[그림 2] 환경변화가 문화 정책에 미친 영향	
[그림 3] 지역 문화 정책의 변화가 도시 문화 정책에 미친 영향	
[그림 4] 라틴아메리카 문화 도시 전략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 참여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이라는 문제의식이 부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음. 현재 문화관광부는 광주, 전주, 경주, 부산을 4대 지역거점문화도시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 내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관심은 우리 보다 앞서 문화도시를 조성해온 외국의 사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문화도시전략을 구사해 탈현대사회의 도시 재생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유럽 선진국의 주요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들의 사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왔음.
- 한국 사회에서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음. 세계화의 확대로 인해 국제교류가 활발해져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며 국제결혼 건수가 급상승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도 문화적 소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세계화로 인한 문화 다양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시켜왔음.

2. 목적

-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유럽과 함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왔음. 고대문명을 꽃피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현대 대중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흑인문화, 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백인 문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문화다양성의 세계적 보고로 잘 알려져 있고 198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해 자국의 문화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 아래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음.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과 문화적 소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성장으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왔고 문화적 소수자가 민족문화에 공헌해왔음을 적극적으로 재확인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 다양성은 자생적인 문화도시 형성의 자양분이 되어 왔음.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15세기~16세기에 걸쳐 이베리아 반도의 양 제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음. 이들 도시들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문화행정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국가발전전략을 새롭게 제출하고 있으며 각 도시들도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 연구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세계적 화두와 문화도시라는 도시발전전략을 놓고 벌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의 노력을 분석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라틴아메리카는 문화적으로 크게 원주민라틴아메리카, 백인라틴아메리카, 흑인라틴아메리카로 분류할 수 있음. (까를로스 푸엔페스, 1992) 먼저 각 문화권을 대표하는 나라를 선정하였는데 원주민 문화의 멕시코, 백인이민자 문화의 아르헨티나, 흑인문화의 브라질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선정하고 나서 각 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를 선정하였음. 세계적인 예술축제의 도시 멕시코의 과나화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흑인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살바도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라틴아메리카 3국의 수도를 방문하여 국가문화정책 공식 문서와 참고 문헌을 수집하고 국가문화기관의 정책 책임자들을 인터뷰하여 문화도시 전략의 바탕이 되는 국가문화정책을 분석하였음. 또한 지역 문화도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문화기관의 지역문화정책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였고 지역문화정책 관련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3개국의 문화도시를 방문하여 도시문화정책의 책임자를 면접하고 도시 문화정책 공식 문서와 참고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 그동안 한국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도,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 본 연구는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음.
-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생적 문화도시 전략으로 도시발전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의 노력을 통해서 한국은 도시들이 다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의 전략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쟁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조성사업에도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며 한국에서의 문화도시들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임.

제 2 장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문화 정책

제1절 멕시코의 국가 문화 정책

1. 멕시코 문화

가. 개관

- 멕시코는 2대 메소아메리카 고대 문명인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의 발상지로 다채로운 고대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원주민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대표국가임. (카를로스 푸엔테스, 1992)
- 멕시코시티는 스페인 제국 정복기(16세기)이후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설치한 2개의 부왕령 (페루 부왕령, 누에바에스빠냐부왕령)중 하나인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 부왕령의 수도로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음.
- 1910년에 발발한 멕시코 혁명은 멕시코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와 사상의 측면에서도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음.

나. 주요 특징

-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고대·중세의 문화유적을 갖고 있는 곳으로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유산을 23개 보유하고 있음. 스페인(35), 이탈리아(35), 중국(28), 독일(27), 프랑스(27), 영국(25), 인도(24) 이어 세계 8위임.
- 멕시코는 언어 다양성의 보고임. 멕시코 원주민 담당 기관에 따르면 멕시코 총인구의 약 9천 7백만 명 중 13%가 원주민 인구로 추정되며 62개의 원주민 언어가 ‘살아 있는 언어’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음.(국가 문화예술위원회, 2003)
- 멕시코 혁명(1910~1917) 이후 혁명 주도 세력에 의한 고대 원주민 문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고 원주민 문화는 멕시코 민족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음.

- 멕시코 문화는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계 유럽 문화가 혼용되어 탄생한 혼혈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멕시코는 전국적으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온 나라로서 지역마다 고유한 민속 음악과 민속 무용이 전해 내려오고 지방색이 뚜렷한 축제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음.
- 중서부 할리스코 주의 마리아치 음악, 동남부 베라끄루스 지방의 하로차 음악 등 풍부한 민속음악 전통은 현대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2. 멕시코 문화정책의 역사

가. 멕시코 혁명 이후

- 멕시코 근대문화정책은 멕시코 혁명 이후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벽화운동(Muralismo)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벽화운동은 멕시코 교육부가 후원하는 공공문화운동으로 멕시코 시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위치한 대형 공공기관 건물 내·외부에 기념비적 벽화를 그려 혁명의 이념을 표현하려 했음.
- 당시 멕시코 민중의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현실을 감안해 혁명의 새로운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벽화라는 시각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계몽하고 민족 통합을 꾀하려고 했음.
-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 즉 시민 계몽과 민족 통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화정책은 국가교육정책의 일부로 간주되었음. (토비 밀러, 조지 유디스, 2002)
- 문화정책의 고유 영역은 문화재 보존과 예술 진흥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오다가 1978년 교육부(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내에 민속문화국(Dirección de las Culturas Populares)이 설치되어 “살아 있는 문화(culturas vivas)”인 혼혈농민과 원주민들이 유지해 온 전통 문화까지 포괄하였음. 이로써 문화 개념이 확장되었고 문화정책의 영

역도 확대되었음. (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7)

- 멕시코 혁명 이후 분배된 토지를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멕시코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농촌 지역의 “살아 있는 문화”를 처음으로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음. 이는 문화를 예술로 간주하는 문화에 대한 좁은 개념에서 문화를 미학적·인류학적 상징표현물로 이해하는 문화에 대한 넓은 개념으로 변해갈 단초를 제공하였음.
- 백인, 혼혈인,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융합되어 탄생한 멕시코 농촌의 “살아 있는 문화”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훗날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였음.
- “우리는 과거의 문화재도 아니고 예술엘리트들의 창작물도 아닌 제3의 영역, 즉 살아 있는 멕시코 민중의 문화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당시 국가가 외면하고 있던 살아 있는 원주민 문화를 비롯한 농촌문화, 도시내의 이농자들의 문화, 국경지대의 문화(멕시코는 북으로 미국과 접하고 남으로 과테말라 등 중미국가와 접하고 있다)를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였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노동자문화와 산업문화는 제대로 다루지지 않고 있다”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2006년 출간한 <민중문화:7인이 말한다>의 초대 민속문화국 국장 (1977~1979년) 로돌포 스타베나헨(Rodolfo Stavenhagen)의 인터뷰 중)

나. 멕시코 개방기-1차 방향전환

-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멕시코의 대외개방정책은 1994년 캐나다, 미국과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로 절정을 맞이하였음.
- 멕시코의 대외 개방정책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까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Carlos Salinas, 1988~1994 재임)은 1988년 국가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를 창설하여 경제 개방과 세계화의 가속화가 가져올 문화적 충격을 대비

하고자 하였음.

- 1988년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은 멕시코 문화정책의 1차 방향 전환을 의미함. 문화의 개념은 예술을 포함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제반 가치”로 확대되었고 문화정책은 교육정책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정책으로 변화하였음. (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0)

다. 멕시코 민주화 시기-제2차 방향전환

1) 문화민주주의

- 2000년 멕시코는 72년 만에 야당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음.
 - 비센테 폭스(Vicente Fox, 2000~2006)대통령은 소속정당 국민행동당(PAN, 우파 정당)을 기반으로 민주인사를 결합시켜 행정부를 구성하였음.
 - 1980년대부터 시작된 멕시코 민주화운동이 정권교체라는 결실을 낳았고 이로써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었음.
 - 신정부는 “변화”(Cambio)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문화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멕시코 문화정책은 2차 전기를 맞이하였음.
- 비센테 폭스 정부는 문화를 “시민의 기본권”이자 “국가발전의 우선 의제”로 선언하였음.
 - 문화관련 시민권(표현·창작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신장을 약속했으며,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여 문화향유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음.

2) 문화 다양성

- 비센테 폭스 정부는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치아파스 무장 갈등(1994년 멕시코 동남부 치아파스 주에서 마야족 원주민으로 구성된 사빠피스따 민족해방군(EZLN)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고 공식적으로 멕시코를 다민족국가, 다문화국

가로 선언하였음. (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7)

- 비센테 폭스 정부는 2001년 8월 [원주민 권리와 문화에 대한 법률], 2003년 3월 [원주민 민중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일반법], 2003년 6월에는 [차별 방지 및 철폐를 위한 연방법]을 제정하여 원주민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었음.
- 2003년 3월에는 국립원주민언어연구원(INLI)을 설치했고 2003년 5월 국립원주민연구소(INI)를 국가원주민민중발전위원회(CNDPI)로 확대 개편하여 자율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원주민 담당 국가기구들을 재정비함.
-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민족문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관용하는 태도에서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천명하였음.(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6)
-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의 13개 관계 기관과 국제기구 유네스코(UNESCO)와 유니세프(UNICEF)와 함께 “멕시코의 문화다양성 캠페인(Campaña Nacional por la Diversidad Cultural de México)”을 벌여옴.

3) 문화 정보화

- 비센테 폭스 정부는 문화 정보를 “문화 정책과 문화사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문화정보제도(Sistema de Información Cultural)를 도입하였고 다양한 문화 관련 조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음.
(문화정보제도홈페이지 sic.conaculta.gob.mx)
- 멕시코의 언어 다양성에서 문화유산, 공공문화시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가구 보유 문화매체까지 문화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멕시코 문화 인프라 총람](Atlas de Infraestructura Cultural de México, 2003, Conaculta)이 출간됨.
- [문화향유실태조사](Encuesta Nacional de Prácticas y Consumo Culturales, 2004, Conaculta) [독서문화실태조사](Encuesta Nacional

de Lectura, 2006, Conacuta)등 다양한 문화소비실태 조사도 이뤄짐.

3. 멕시코 문화 정책

가. 기관

1) 위상

- 명칭은 국가문화예술위원회(Conaculta,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로 1988년 대통령령에 따라 창설되었음.
- 연방정부의 공공교육부(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의 권한을 분산시킨(분권화) 자율적 행정기구로 출범하였음.
 - 공공교육부 내의 문화총국(Subsecretaría de Cultura)을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음.
- 출범 이후 연방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문화재·문화산업 관련 부서들을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통폐합해 명실상부한 국가문화담당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였음.

2) 구성 및 운영

-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역사와 성격이 각기 다양한 문화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국립인류학역사학연구원(INAH, 1939년에 창설되어 고대와 중세의 유산을 보존하는 국가기구)과 국립예술연구원(INBA, 1946년에 설립되어 예술 진흥 및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국립예술학교(CENART), 세르반테스 축제 조직위원회(FIC, 1972년부터 과나화또 시에서 열리는 예술축제 관장기구), 문화전문공영채널 22(CANAL 22), 국립문화예술기금(FONCA, 1989년에 설치된 문화 예술진흥기금)등 총 36개의 부서와 기관으로 구성됨.
- 소속 기관들은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통일된 국가문화정책 속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소속 기관들과 상의해 멕시코 연방 정부의 문

화정책을 제시하고 소속기관들과 협력해 문화정책을 집행함. (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0)

-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운영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원회 예산 편성 기능은 공공교육부에 속해 있음.

3) 논쟁

- 국가문화기관의 위상을 놓고 멕시코 문화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지금 멕시코 문화계 내부에선 문화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치가들이 문화의 중요성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담당기관의 위상을 높여 문화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문화교육국장이자 유네스코 자문위원 호세 안토니오 막그레고르(José Antonio Mac Gregor))

나. 예산

- 2007년 현재까지 멕시코 연방정부는 문화예산에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음. 기본적 문화지표인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예술비 지출 통계도 발표하고 있지 않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멕시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문화여가비에 대한 정부 지출 통계(국내총생산(GDP) 대비)를 2007년까지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음. 다만, 문화여가비 가구 지출 통계(국내총생산(GDP) 대비)는 2%로 통계를 제출한 29개 국 가운데 최하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
- 2007년 멕시코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총지출예산에서 문화예술지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4%로 추정됨.
 - 2006년 12월에 취임한 펠리페 깔데론 정부의 제1차 정부 보고서(Primer Informe de Gobierno)에 따르면, 2007년도 문화 관련 예산

(스포츠 예산 포함)은 전년도에 비해 총액 기준으로 3.5% 상승한 것으로 보고함.

- 멕시코의 문화 부문 예산은 총액 면에선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유네스코 권고 수준인 정부 총 예산의 1%에는 못 미치고 있음.
- “문화부문에 대한 예정배정은 아주 인색하다. 음악은 안 들어도 살지만 병원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한다. 예산 배정을 맡고 있는 정치가들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화를 여전히 예술로만 간주한다. 반면 우리는 문화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문화의 집(Casa de Cultura)'이 없으면 청소년들은 마약중독자가 될 지도 모른다.”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문화교육국장이자 유네스코 자문위원 호세 안토니오 막그레고르(José Antonio Mac Gregor))

〈표 2-1〉 멕시코 문화정책의 역사

구분	1910년	1988년	2000년
정치적 사건	멕시코 혁명	멕시코 개방	야당의 정권교체
문화적 사건	멕시코 벽화운동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다민족, 다문화국가 선언
정책의 변화	교육 정책의 구성 요소, 예술 진흥 정책	문화 정책의 독자성 강조	문화 민주주의 정책

다. 정책

1) 개요

- 1988년 출범 이래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 종합발전계획 〈국가발전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에 따라 〈국가문화계획〉(Programa Nacional de Cultura)을 제출하기 시작하였음.
- 〈국가문화계획〉은 신정부 문화정책의 청사진으로서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소속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작성하며 예술가들과 시

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공식 국가계획으로 확정됨.

- <국가문화계획 2001~2006>는 비센테 폭스 정부의 국가문화정책을 잘 보여주는 공식문서로 멕시코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부록 멕시코의 <국가문화계획2001~2006>을 참조할 것)
- <국가문화계획 2001~2006>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문화가 국가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아래 ‘문화계획 수립의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의거해 ‘문화 비전’과 ‘문화 미션’을 채택하였음.
 - ‘문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11대 기본 과제를 제시하였음.
 - 문화 정책의 대상을 10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로 종합목표와 세부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끝으로 <문화계획>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음

2) 내용

<국가문화계획 2001-2006>의 주요 내용

- 문화정책 작성의 5대 원칙
 - 창작·표현의 자유 완전 보장
 - 문화 다양성의 재확인
 - 문화 재화·용역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 문화정책과 문화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강화
 -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균형적 문화발전 추구
- 문화비전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실질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며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 문화미션

“문화 발전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균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유형·무형 문화, 전통·현대 문화 등 문화 전반을 보존·전파하고, 모든 멕시코 시민에게 기회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창작, 전파 활동을 활성화한다.”

○ 11대 기본과제

- 사회 참여방식의 다양화 추진
- 문화부문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문과 문화부문의 긴밀한 연계
- 문화예술 장르 전반의 다양한 관객 창출
- 책 읽는 나라 만들기.
- 문화시설 개선 및 확충.
- 문화산업 진흥.
- 전략적인 국제 문화 교류 정책의 추진.
- 문화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보의 적극적 활용.
-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메커니즘 개발.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행정의 현대화와 혁신.

○ 10대 영역

- 문화재 보존 및 연구
- 민속문화 및 원주민 문화
- 문화재, 개발, 관광
- 예술창작 진흥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 문화전파
- 독서와 도서
- 시청각매체
- 문화적 균형 발전 및 시민참여
- 국제협력

○ 평가기준

- 전통적 평가기준은 목표 달성의 효과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자원

분배 및 자원 집행의 투명성 등임.

- 4대 신 평가기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이 제공되었는지

시민들에게 편익이 골고루 분배되었는지

추진일정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정책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행정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문화지표시스템, 문화정보시스템, 문화행정감사시스템 등과 결합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3) 분석

○ 문화계획 수립 5대 원칙

- 72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민주정부로 출범한 비센테 폭스 정부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권리로서 “창작·표현의 자유 완전 보장”을 문화정책 수립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문화 다양성의 재확인과 시민참여강화”라는 원칙을 천명하였음.

- 멕시코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지리적 격차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원칙으로 “문화 재화·용역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원칙과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균형적 문화발전” 원칙을 제시함

○ 문화비전과 문화미션

- ‘문화비전’에서는 먼저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문화정책의 보편적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문화미션’에서는 기회의 동등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여 계층적·지리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문화의 다양한 분야 전반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고, 문화 활동 전반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천명하고 있음.

○ 11대 기본 과제

- 11대 기본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관련 모든 정부기관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연방행정부의 사회개발 및 인간개발 관련 부서들, 관계부처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문화 정책을 국가의 우선 추진 의제로 만들어야한다”고 기술하였음(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1)
- 11대 기본 과제는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한 것임. 과제 가운데는 1988년 국가예술위원회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들도 있고 2001년에 새롭게 포함된 과제들도 있음.
- 문화산업, 정보, 신기술 등에 대한 강조는 문화의 산업화와 문화의 정보화라는 세계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로서 새롭게 포함된 과제들임.
- 10대 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
 - 문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10개의 영역에 전반에 걸쳐 11개 기본과제를 적용해서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함. 특히 기본과제에 비추어 그간 수행해오던 프로그램 전체를 재검토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신설프로그램을 도입함. (부록의 <멕시코국가문화계획 2001~2006> 참조할 것)
- 평가기준
 - 전통적인 평가기준이 문화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4대 신평가기준은 문화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문화행정의 실질적인 효과까지 정책 평가에 포함시켰음

4. 멕시코 지역문화정책

가. 기관

-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총국(Dirección General de Vinculación Cultural)은 “연방정부와 멕시코 지방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문

화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 위해” 비센테 폭스 정부 시기(2001-2006)에 설치되어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멕시코 연방공화국은 수도 멕시코시티와 31개의 주, 2445개의 무니시피오(Municipio,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 멕시코 시티를 포함해 31개의 주 정부는 모두 문화담당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담당기관의 위상과 명칭은 다양함. 특히 주 정부의 문화담당기관은 1988년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을 전후해서 대거 등장했음.
- 민주화와 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변화했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명령을 내리는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지금 주정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제 주정부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문화교육국장이자 유네스코 자문위원 호세 안토니오 막그레고르(José Antonio Mac Gregor))

나. 정책

-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방향은 <국가문화계획2001-2006>의 ‘문화정책 수립 5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균형적인 문화발전 추구”에 명시되어 있음. 멕시코는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 간의 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화적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통합의 의지를 천명한 것임.
- 지역문화총국은 물론이고 국가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이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직·간접적으로 펼치고 있음.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민중문화·원주민문화 총국(Dirección General de Culturas Populares e Indígenas)은 지역 농촌의 농민·원주민 공동체 문화를 진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세르반테스 축제조직위(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의 경우는 멕시코 중부의 지방 소도시 과나화토에서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지역 문화 진흥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

〈표 2-2〉 〈국가문화계획 2001~2006〉의 체계

구분	내용
문화 정책 작성 5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 ○ 문화적 다양성의 재확인 ○ 문화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 문화정책과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강화 ○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균형적인 문화발전 추구
문화 비전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실질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며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문화 미션	“문화 발전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균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유형·무형 문화, 전통·현대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전반을 보존 전파하고, 모든 멕시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창작, 전파 활동을 활성화한다.”
11대 기본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방식의 다양화 추진 ○ 문화부문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문과 문화부문의 긴밀한 연계 ○ 문화예술 장르 전반의 다양한 관객 창출 ○ 책 읽는 나라 만들기. ○ 문화시설 개선 및 확충. ○ 문화산업 진흥. ○ 전략적인 국제 문화 교류 정책의 추진. ○ 문화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보의 적극적 활용. ○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메커니즘 개발.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행정의 현대화와 혁신.
10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 및 연구 ○ 민속문화 및 원주민 문화 ○ 문화재, 개발, 관광 ○ 예술창작 진흥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 문화전파 ○ 독서와 도서 ○ 시청각매체 ○ 문화적 균형 발전 및 시민참여 ○ 국제협력
4대 신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이 제공되었는지 ○ 시민들에게 편익이 골고루 분배되었는지 ○ 추진일정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 정책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제2절 아르헨티나의 국가 문화 정책

1. 아르헨티나 문화

가. 개관

-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백인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총 인구 3천 6백 만 명의 90%는 유럽계 백인으로 주로 스페인계와 이탈리아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메스티소(백인과 원주민의 혼혈) 인구가 8.6%, 원주민 인구는 0.5%로 추정됨.
-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남부·중부 유럽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여 백인 중심의 나라가 되었고 1983년 민주화 이후에는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 인접국의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문화적 소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나. 주요 특징

- 원주민 문화
 - 아르헨티나는 고대 원주민 문명의 발상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원주민 인구가 소수만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원주민 문화의 영향이 비교적 약한 지역이었음.
 - 1878~1884년까지 “사막의 정복” 원주민 말살전쟁을 벌임. 원주민 거주 지역 팜파스, 파타고니아 지방을 유럽이민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하기 위해 원주민을 축출하였음. 아르헨티나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원주민을 말살하고 원주민 문화를 배제함.
 - 1994년 <원주민 사회문화적 권리보장 법률>이 제정되어 아르헨티나는 토착원주민이 민족문화에 기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 탱고
 -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사이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스 지역에서 ‘탱고’가 탄생하였음. 탱고는 춤과 음악을 두루 아우르는 말로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다양한 기원을 가진 문화의 혼혈로 탄생한 것임. 현대적인 음악 장르들과 섞여 탱고의 진화가 계속 되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2007년 현재 5회를 맞은 ‘메트로폴리탄 탱고 춤 경연대회(Campeonato Metropolitano de Baile de Tango)’와 ‘세계탱고 춤 경연대회(Campeonato Mundial de Baile de Tango)’를 개최해 탱고 춤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고 2007년 현재 9회를 맞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축제(Festival Buenos Aires Tango)’를 개최해 탱고 음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2. 아르헨티나 문화정책의 약사

가. 신자유주의 시대

- 1983년 민주화 이후부터 2001년 경제위기 시기까지 아르헨티나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 공공부문·국가기능의 축소는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약했으며 급속도로 진행된 대외개방은 아르헨티나 문화기업을 붕괴시켰고 외국문화(특히 미국문화)의 광범위한 유입을 가져왔음.
 - 이 시기 아르헨티나 문화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었음.
- 문화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문화 정책의 대상도 재정립되었음.
 -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에 대한 넓은 관점(문화에 대한 미학적·인류학적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을 채택하였고 예술진흥정책으로 제한되었던 문화정책의 대상도 확대되었음.
- 문화담당기관의 위상이 변화했고 문화정책의 독자성이 강화되었음.
 - 아르헨티나의 문화담당기관은 연방 교육부에 속해 있다가 분권화정

책의 영향을 받고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직속기구(Secretaría)로 변화하였음.

- 문화체육원(Secretaría de Cultura y Deportes), 문화언론원 (Secretaría de Cultura y Medios de Comunicación)등으로 불리다가 2002년 문화원(Secretaría de Cultura)으로 확정되었음. 명칭의 변화는 문화정책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나. 2003년 이후

- 2001년 국가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정치는 방향 전환을 맞이하였음.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2003~2007 재임)대통령은 20여년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정책에서 탈피하였고 문화정책도 일대 전기를 맞았음.
- 문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음.
 - “이제까지 문화를 ‘문학과 예술의 고유한 상징적 생산물의 전체’로 한정했으나 새 문화정책은 기존의 정책 대상은 물론이고 ‘지식, 의례, 신념, 가치, 규범, 관습 등 사회의 형성, 재생산, 변형을 위해 한 사회가 환경과 맺는 일상적인 관계의 다양한 형태’로 재정의한다”(아르헨티나 연방문화원, 2006)
- 아르헨티나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였음.
 - “토착 원주민 문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민 공동체의 문화도 존중하는 다민족국가, 다문화국가로서의 아르헨티나를 강조하고 있다”(연방문화원 정책조정실의 조정관 베라 코르스(Vera Kors))
- 연방문화원(Secretaría de Cultura de la Nación)은 문화산업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경제 통계에서 문화산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독립시켜 다루라고 요구하고 있음. 문화산업의 국가경제기여도를 측정하여 문화산업진흥을 국가적 의제로 추진하고자 함.

- 연방문화원은 2007년 현재까지 신임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국가문화 계획은 물론이고 중·장기 국가 문화계획 등의 백서를 발표한 적이 없음.
- 2006년 ‘제1차아르헨티나문화총회(Primer Congreso Argentino de Cultura)’에서 중·장기 국가문화계획으로 ‘국가문화전략계획(Plan Estratégico Nacional de la Cultura)’작성을 위한 정책팀을 구성하겠다고 천명하였음
- 문화정보제도
 - ‘제1차 아르헨티나 문화 총회’에서 국가문화정보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음.
 - “효과적인 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서는 국가의 문화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문화정책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로서 ‘아르헨티나문화정보제도(SINCA, Sistema de Información Cultural de la Argentina)’를 도입한다고 밝힘.(아르헨티나문화정보제도홈페이지, www.cultura.gov.ar/sinca)
- 국가문화소비제도
 - ‘국가문화소비제도(SNCC, Sistema Nacional de Consumos Culturales)’를 도입해 현재까지 <문화소비조사 보고서> 3권을 발표하였음. 2005년 8월 <문화소비조사 1차 보고서>, 2006년 3월 <문화소비조사 2차 보고서>, 2006년 11월에는 <문화소비조사 3차 보고서>를 발간함.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소비조사를 위해서 전통적인 문화향유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독서문화실태, 정보매체(인쇄매체와 방송매체, 인터넷과 컴퓨터 등)활용실태, 신문화소비실태 (이동통신, 비디오게임, 축구현상, 외국어지식, 문화 혹은 직업 관련 코스 등)등을 두루 포괄함.

3. 아르헨티나 문화 정책

가. 기관

- 명칭은 아르헨티나 연방 문화원(Secretaría de Cultura de la Nación)으로 행정부의 부서 위상을 갖는 부(Ministerio)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음.
- 아르헨티나 헌법은 내각의 부서(Ministerio) 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부서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 현재 국가정보담당기관, 관광기관, 문화기관 등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원(Secretaria)의 위상을 보유함.

나. 예산

1) 통계

- 아르헨티나 연방 정부는 ‘아르헨티나문화정보제도(Sistema de Información Cultural de la Argentina)’에 따라 2005년부터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 발표하고 있음
- 연방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24%, 2006년 0.23%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의 문화예산 비율 2005년 3.84%, 2006년 3.63%에 비해 낮음.
 - 연방 정부 문화 예산 총액은 2005년 182,604,720 페소, 2006년 216,839,510 페소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문화예산 총액은 2005년 239,975,944페소, 2006년 281,135,210페소로 총액 기준으로 연방정부 문화예산이 시 문화예산보다 더 낮음.
- 아르헨티나의 연방·지방정부의 전체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40%, 2006년 0.37%임.

2) 특징

- 연방정부의 문화예산은 2003년 네스토르 끼르치네르 대통령 집권 이후 총액 면에서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문화예술비중은 유네스코 권

고기준인 1%에 못 미침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유네스코 지방 정부 문화예산 권고 기준인 4%에 약간 못 미치는 문화예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높은 문화예산 비중을 갖고 있으며 총액 면에서도 연방정부 문화예산 보다 많아 아르헨티나 중앙·지방 정부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문화재정을 보유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제외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연방문화원의 도움이 필요 없다. 연방문화원은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
 (연방문화원 정책조정실의 조정관 베라 코르스(Vera Kors))

〈표 2-3〉 아르헨티나 문화정책의 역사

구분	2003년 이전	2003년 이후
국가 정치	신자유주의 정치	탈신자유주의 정치
문화 개념	협회의 관점	광의의 관점
문화 정책	예술진흥 정책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문화 민주주의

다. 정책

1) 개요

- 〈마르 델 플라타 선언〉
 - ‘제1차 아르헨티나 문화총회’에서 연방문화원장, 23개 주(provincia) 문화기관의 책임자들, 연방의회 문화상임위원장 등 아르헨티나의 문화정책 결정의 주요 책임자들의 총의를 모아 〈마르 델 플라타 선언 (Declaración de Mar del Plata)〉을 채택하였음.
 - 제1차 아르헨티나 문화총회는 연방·지방정부의 모든 문화담당기관과 시민사회가 만나 문화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회의로 2년

에 한 번씩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음.

-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가한 총회에서는 7개 분야의 포럼을 개최했음. 공연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 문화적 역동성(시민참여), 공예와 디자인, 문학과 시각예술, 유형·무형 문화재 등 총 7개 분야임.
- 〈2005년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Informe Anual de la Secretaría de Cultura 2005)〉
 - 2004년 말에 새로 취임한 연방문화원장 호세 누(José Nun, 2004~2007)의 취임 첫해에 대한 평가보고서로 호세 누 재임 기간의 문화원 정책을 가장 잘 볼 수 있음.
- 〈마르 델 블라파 선언〉과 〈2005년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를 분석하여 아르헨티나 문화정책을 분석할 것임.

2) 내용

〈마르 델 블라파 선언〉 주요 내용

① 전문

- 문화정책은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 국가는 문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책임자
- 아르헨티나는 다문화사회로서 토착 원주민 민중과 이민공동체들이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
- 문화는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
- 유네스코의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 재화·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 개념을 지지한다.

② 제안

- 〈국가문화전략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정책팀 구성을 제안한다. 〈국가문화전략계획〉에는 문화전략 추진의 재정적·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문화정보제도’를 구축한다.

- 2년 마다 지속적으로 아르헨티나 문화총회를 개최한다.

〈2005년도 연방문화원의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 문화정책 5대 종합 목표
 -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것
 - 문화기본권을 연방전체로 확대할 것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것
 - 문화 분야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 2010년 독립정부 수립 2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할 것
- 5대 정책영역
 - 시민정신 함양
 - 사회통합
 - 문화균형발전
 - 2010년 행사준비
 -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표 2-4〉 〈마르 델 플라타 선언〉 전문

내용	의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
국가는 문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책임자	문화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아르헨티나는 다문화사회로서 토착 원주민 민중과 이민 공동체들이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	아르헨티나 문화의 성격
문화는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
유네스코의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 재화·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 개념을 지지한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제무역협정에 임하는 기준

3) 분석

〈마르 델 플라타 선언〉

○ 전문

- “문화정책이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했음.
- “국가는 문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책임자”라며 문화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아르헨티나는 다문화사회로서 토착 원주민 민중과 이민공동체들이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아르헨티나 문화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문화는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이라며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구체화하였음.
- “유네스코의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 재화·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 개념을 지지한다”며 아르헨티나 연방정부가 국제무역협정에 임하는 기준을 제안하였음.
- 위에서 열거한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담당정부기관의 현대화, 자율성, 체계적인 조직화”와 “문화예산의 실질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힘

○ 제안

- 〈마르 델 플라타 선언〉의 ‘제안’에서는 〈국가문화전략계획〉(Plan Estrategico Nacional de la Cultura)을 작성하기 위한 정책팀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가문화전략계획〉에 문화전략 추진의 재정적·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국가문화정보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여 문화정보화를 제도화하였음.
- 2년 마다 지속적으로 아르헨티나 문화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문화 총회를 연방과 지방 정부를 아우르는 국가문

화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삼겠다고 천명하였음.

〈2005년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

○ 문화정책 5대 종합 목표

- 첫 번째 종합 목표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것”의 핵심 내용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하는 것임.
- 두 번째 종합 목표인 “문화기본권을 연방전체로 확대할 것”의 실내용은 아르헨티나 북부지방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한 중남부지방과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서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임.
- 〈2005년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는 “1990년대 구조조정정책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양산되었다”고 기술하면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문화 분야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문화 행정과 문화향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0년 독립정부 수립 2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할 것”은 국가적 행사를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임.

○ 5대 정책 영역

- 각 정책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민정신함양’ 영역에서는 다문화국가건설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정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균형발전’ 영역은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 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동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아르헨티나 독립정부수립 200주년 행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적 유대를 재확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가령 멕시

코에서는 2010년 멕시코 독립 200주년, 멕시코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가장 많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문화원 조직 개편, 재정 확충,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메세나 법안의 도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표 2-5〉 5대 정책 영역과 세부 과제

정책 영역	세부 과제
시민정신 함양	다문화국가건설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정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제시
사회통합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을 강조
문화균형발전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 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동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2010년 행사준비	2010년 아르헨티나 독립정부수립 200주년 행사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문화원 조직 개편 및 재정 확충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메세나 법안의 도입

4. 아르헨티나 지역문화정책

가. 기관

1) 연방문화원

- 연방문화원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비해 총액과 비율 양면에서 낮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 연방문화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있음.
- 연방문화원은 연방·지방 정부의 책임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아르헨티나 문화총회’, 문화원장이 주재하고 지역의 문화책임자들이 모이는 ‘국가문화위원회(Consejo Nacional de Cultura)’를 통해서 연방정

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함.

2)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는 가장 많은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로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 문화정책을 주도해옴.
-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2010년까지를 다루는 중기문화계획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전략계획(Plan Estratégico de Cultura de la Ciudad de Buenos Aires)〉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나. 정책

- 〈2005년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에 제시된 ‘문화정책 5대 종합 목표’의 하나로서 “문화기본권을 연방전체로 확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2005년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에 제시된 ‘5대 정책 영역’ 가운데 하나인 ‘문화균형발전’ 영역에서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 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동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제3절 브라질의 국가 문화 정책

1. 브라질 문화

가. 개관

- 브라질은 흑인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대표 국가 가운데 하나임. 브라질 흑인 문화는 포르투갈 제국 식민지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유입된 흑인 노예 인구에서 기원하는데 토착원주민 문화와 포르투갈 문화와 융합되어 브라질 문화의 원형을 형성하게 되었음.
 - 19세기말~20세기 초의 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브라질 문화는 다양한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주로 남부·중

부 유럽)문화와 브라질 문화가 다시 혼합되었음.

- “브라질 카톨릭 종교는 포르투갈인이 가져온 카톨릭 종교가 아니다.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종교 깡동브레(Candomblé)도 아프리카인들이 가져온 종교가 아니다. 브라질 문화는 기원이 다른 문화들이 섞여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이다.” (브라질 연방 문화부 차관 주까 페레이라(Juca Ferreira))
-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 전체 인구 가운데 백인 46.7%, 혼혈(흑·백 혼혈 몰라토, 백인과 원주민 혼혈 메스티소 포함) 43.6%, 흑인 8.9%, 아시아계 혹은 원주민 0.8%으로 추계됨.
- 인종별 인구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 인구는 주로 식민지 시대 중심지였던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백인인구는 근대산업화의 중심지 남부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음. 인종별 인구분포는 지역 문화의 특색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북동부 지역은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요람으로 잘 알려져 있음.

나. 주요 특징

- 브라질 문화의 주요 특징들은 브라질흑인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깡동브레(candomblé) 아프로 브라질 종교의 일종으로 아프리카 기원의 오리샤(orixá)라고 불리는 신들을 숭배함.
- 까뿌에이라(capoeira) 아프리카에서 전래된 전통무예로서 현재는 춤으로 전파되고 있음.
- 삼바(samba) 아프로브라질 음악의 대표 장르로 다양한 하위장르를 갖고 있는 브라질 음악의 대명사.
- 현대음악운동도 흑인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보사노바(Bossa Nova)는 1950년대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등장한 음악운동으로 삼바 음악과 재즈 음악이 혼합된 것으로 서구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음.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톰 조빙 (Tom Jobim), 주앙 질베르투(João Gilberto)가 있음.

- 열대주의 문화운동(Tropicalismo) 1960년대 말 독재정권 치하에 등장한 ‘브라질대중음악’(Música Popular Brasileira) 혁신운동으로 브라질 전통음악과 세계적인 음악경향을 두루 결합했다. 이 비판적 문화운동의 흐름은 브라질 연극예술과 조형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까에따누 벨루주(Caetano Veloso)과 문화부 장관에 재직중인 질베르투 질(Gilberto Gil)이 있음.
- 브라질은 문화적인 면에서 흑인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나라지만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백인과 흑인 인구 사이의 불평등이 존재함.
 - “브라질 흑인 문화는 음악, 춤, 요리, 종교, 생활방식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비흑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의 사회적 권리는 열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다.” (브라질 연방 문화부 차관 주카 페레이라(Juca Ferreira))

2. 브라질 문화정책의 약사

가. 신자유주의 시대

- 콜료류 지 멜류(Collor de Mello) 시기(1990~1992)
 -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문화부문에 강도 높게 적용되던 시기로 문화공공부문이 급격히 축소되는 격변기였음.
 - 연방문화부(Ministério)는 일시적으로 교육부(Ministério)의 총국(Secretaria)으로 축소되었으며 국립예술재단(Funarte), 공연예술재단(FUNDACEN), 브라질 영화재단, 국립영화배급사 등이 통폐합되어 국립문화예술원(INAC)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문화재정도 삭감되었음.
 - 1985년 민주화 이후에 제정되었던 기업메세나 법안 사르네이 법(Lei Sarney)이 폐지되었다가 좌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후아네 법안(Lei Rouanet)으로 되살아났음.

- 페르난두 엔히끼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시기 (1995~2002)
 - 연방 문화부의 정책방향은 문화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의 문화 활동을 진흥하는 것이었음. 메세나 진흥을 위한 후아네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부문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문화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강조하여 문화투자가 수출소득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연방문화부의 역할은 메세나 법안의 수혜 대상이 될 문화단체를 선정하는 데 제한되었음. (토비 밀러, 조지 유디스, 2002)

나. 룰라 집권 1기(2003~2006)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대통령은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정치인으로 그의 집권은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브라질 정치가 일대 전기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함.
- 룰라 집권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 모두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여러 중도 좌·우파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음. 룰라 집권 1기 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제정책과 진보적인 사회정책(문화정책 포함)을 배합해왔음.
- 국가 역할의 재규정
 - 룰라 행정부의 문화 분야 최우선 과제는 종래의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 역할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었음.
 - 포퓰리즘 시대(1930~1964)와 독재정권 시대(1964~1985)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개입주의 문화정책으로서 특정 문화 경향을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반면 신자유주의시대 문화정책은 문화 부문에서의 국가 역할을 급격히 축소하는 문화정책이었음.
 - “지금 브라질은 군사독재정권시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

고 있다. 국가는 문화적 흐름에 개입해서 문화를 규정하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모든 문화적 흐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요컨대 문화적 시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연방 문화부 차관 주카 페레이라(Juca Ferreira))

〈표 2-6〉 브라질 문화 정책의 역사

구분	신자유주의시대		룰라 집권 1기
	콜료루 지 멜류 시기	까르도주 시기	
기간	1990~1992	1995~2002	2003~2006
문화부의 위상	교육부의 총국으로 축소	문화부 위상 회복	문화부 위상 강화
문화 예산	축소	소폭 회복	지속적 증가
문화 정책	예술 지원 축소 문화 기관 통폐합	메세나 법안 적극 활용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역할의 재정립

○ 정책의 전환

- 룰라 행정부는 열대주의 문화운동을 대표하던 흑인 음악가 질베르투 질을 문화부장관에 임명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고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음.

○ 문화정보제도

- 연방문화부는 브라질지리통계청(IBGE)과 함께 다양한 문화관련조사 활동을 벌여 옴. 연방문화부는 2007년 발표한 <국가발전문화계획(Um Programa Cultural para o Desenvolvimento do País)>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정보제도(Sistema de Informações Culturais)’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음.

3. 브라질 문화 정책

가. 기관

- 명칭은 브라질 연방 문화부(Ministério da Cultura)로 행정부의 부서

위상을 갖고 있음.

- 브라질 문화부는 1985년 브라질 민주화 이후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 “지난 20년 동안 브라질 문화부는 체계적인 문화정책 없이 일해 왔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연방 문화부 차관 주카 페레이라(Juca Ferreira))
- 룰라 대통령 집권 1기(2003~2006) 문화정책은 국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고 브라질 문화부의 위상은 높아졌음.

나. 예산

- 브라질 문화예산은 룰라 대통령 집권 1기(2003~2006)동안 총액과 비율 양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2003년 집권 원년 국가총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했으나 룰라 집권 1기 말 2006년 0.6%로 증가했고, 룰라 대통령 집권 2기(2007~2010)의 첫해 2007년 현재 0.7%로 늘어났음.
- 현재 브라질 문화예산은 유네스코 권고 기준은 1%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연방문화부는 <국가발전문화계획>의 ‘제1전략행동’으로 “연방정부예산의 1%로 문화예산의 증액”을 내걸고 있음.
 - “질베르투 질 문화부 장관은 2003년에 취임할 때부터 문화예산이 최소한 연방정부 총예산의 1%는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우리는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브라질 연방 문화부 차관 주카 페레이라(Juca Ferreira))

다. 정책

1) 개요

- 질베르투 질 장관은 문화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문화생산자(예술가)들과 지식인, 시민사회와 다양한 대화를 시도했고 그 결

과 ‘문화행정 신 패러다임 6대 원리’와 ‘3차원적 문화개념’이 탄생하였음.

- 2007년에는 브라질 문화행정사상 처음으로 룰라 집권 2기(2007~2010) 동안 문화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가발전문화계획>을 발표하였음.

2) 내용

- 문화행정 신패러다임 6대 원리
 - 경제발전이 삶의 풍요를 결정한다면 문화발전은 삶의 질을 규정한다.
 - 문화는 투표, 주택, 음식, 건강, 교육과 같이 시민의 기본권이다.
 - 문화정책의 핵심 목표는 문화 재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문화정책은 국가발전정책에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문화정책은 사회전체의 문화발전, 사회통합, 고용·수익 창출, 브라질 문화의 고유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 브라질 시민의 문화적 지혜와 지식을 존중하고 진흥하는 일은 국가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3차원적 문화개념
 - (미학적·인류학적) 상징 표현물로서 문화
 -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
 - 경제로서의 문화

<국가발전문화계획 2007~2010>

- 10대 전략 행동
 - 1. 문화예산의 증액
 - 국가 총예산의 1%로 문화예산을 늘린다.
 - 2. 문화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
 - 문화지점(Pontos de Cultura) 사업 등을 강화한다.
 - 3. 브라질 노동자 문화 사업 추진
 - 노동자들이 문화예술시설에 접근하고 문화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4. 공영방송의 다양성 증진과 질적 수준 제고
 - 연방문화부가 조정하는 공영라디오 및 공영텔레비전 연계망을 구축한다.
 5. ‘국가문화제도(Sistema Nacional de Cultura)’의 발전과 <국가문화계획>(Plano Nacional de Cultura)의 수립
 - 연방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체가 국가문화정책에 참여한다.
 6. ‘문화정보제도’의 도입
 -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7. 문화지원정책의 강화
 -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8. 저작권 관련 법률 정비
 -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일 법안을 제시한다.
 9. 문화부 교육부 상호 협력의 제도화
 - 문화와 지식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연방문화부의 지속적인 행정개혁
 - 문화담당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7대 추진 과제
- 문화 다양성의 인정
 - 문화 접근권의 제고
 - 문화 경제의 진흥
 - 문화 정책의 교육정책과 방송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의 개발
 - 문화행정의 참여적·협력적 성격의 심화
 - 문화부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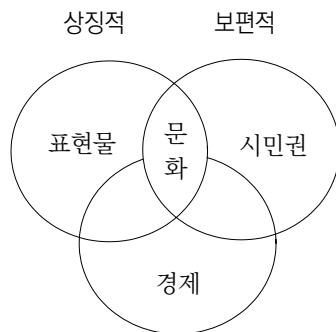
3) 분석

- ‘문화행정 신패러다임 6대 원리’
- ‘문화행정 신패러다임 6대 원리’는 룰라 정부 1기(2003~2006)에 제

출되었으며 플라 정부 2기(2007~2010)까지의 브라질 문화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를 삶의 질의 주요한 지표로 삼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강조한 것은 문화 부문에서 국가가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것임.
- “문화 정책은 국가발전정책에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문화정책이 문화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
- “문화정책은 사회전체의 문화발전, 사회통합, 고용·수익 창출, 브라질문화의 고유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사회통합’의 역할은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문화를 통해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며 ‘고용·수익 창출’의 역할은 문화적 일자리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브라질문화의 고유성 강화’의 의미는 대외적으로는 브라질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브라질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진작하겠다는 의미임.
- “브라질 시민의 문화적 지혜와 지식을 존중하고 진흥하는 일은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는 원칙은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임.

○ ‘3차원적 문화개념’



[그림 1] 3차원적 문화개념

- 문화를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한 개념으로서 룰라 정부의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브라질 연방문화부는 “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음.
 - ‘상징적 표현물로서 문화’ 개념은 문화를 예술에 한정해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개념을 “미학적·인류학적 상징표현물”로 확장한 것임.
- <국가발전문화계획>
- ‘10대 전략 행동’은 룰라 대통령 집권 1기(2003~2007)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평가하여 집권 2기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고 있음.
 - 문화부는 2007년 <국가발전문화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연방·지방 정부(주정부와 시·군정부)와 시민사회가 참가하여 국가전체의 중·장기 문화계획으로서 <국가문화계획>(Plano Nacional de Cultura)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국가문화제도’는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와 시·군 정부까지 연방과 지방의 모든 행정단위들의 문화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 전체의 문화계획과 문화행동을 조정하여 ‘국가교육제도’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국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10대 전략 행동’ 가운데 “브라질 노동자 문화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는 브라질 노동자들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문화티켓을 제공하는 문화 복지정책임.
 - “공영방송의 다양성 진흥과 질적 수준 제고” 전략행동은 민영방송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히 약한 브라질 공영방송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브라질 전역의 200개가 넘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것임.
 - “문화지원정책의 강화” 전략행동은 현재의 국가문화기금(Fundo Nacional de Cultura)지원과 메세나 활성화를 통한 문화지원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연방 문화부는 2007년 메세나 활동을 더욱 장려

하기 위한 새 법안을 제출하였음.

- “문화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 전략행동의 경우 ‘문화지점(Pontos de Cultura)’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문화지점은 다양한 소규모 시민공동체가 제안하는 문화사업프로젝트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함. 현재 브라질 전역에서 20만 개의 문화공동체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집단들의 활동을 장려하여 소속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표 2-7〉 10대 전략 행동

구분	내 용	세부내용
1	문화예산의 증액	국가 총예산의 1%로 문화예산을 늘린다.
2	문화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	문화지점(Pontos de Cultura) 사업 등을 강화한다.
3	브라질 노동자 문화 사업 추진	노동자들이 문화예술시설에 접근하고 문화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공영방송의 다양성 증진과 질적 수준 제고	연방문화부가 조정하는 공영라디오 및 공영텔레비전 연계망을 구축한다.
5	국가문화제도의 개발 및 <국가문화계획>수립	연방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체가 국가문화정책에 참여한다.
6	문화정보제도의 도입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7	문화지원정책의 강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8	저작권 관련 법률 정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일 법안을 제시한다.
9	문화부 교육부 상호 협력의 제도화	문화와 지식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연방문화부의 지속적인 행정 개혁	문화담당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7대 추진 과제

- ‘7대 추진과제’는 룰라 대통령 집권 2기(2007~2010)동안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각 추진과제 마다 다양한 세부과제를 제

시하고 있음. (브라질 연방문화부, 2007)

- ‘문화다양성의 인정’ 과제의 경우, 최우선 세부과제로 “2005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라 브라질의 법과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접근권의 제고’ 과제의 경우, 최우선 세부과제로 ‘〈국가 도서 및 독서 계획(Plano Nacional do Livro e da Leitura)〉을 수립하여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고 포르투갈어 문화를 진흥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경제의 진흥’ 과제의 경우, 최우선 세부과제로 “문화 벤처기업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사업의 새로운 모델에 투자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 정책의 교육정책과 방송 정책과의 연계 강화’ 과제의 경우, “문화를 교육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브라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지역화를 장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의 개발’ 과제의 경우, 최우선 세부과제로 “지원을 받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지원 요청의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문화 지원 정책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문화행정의 참여적·협력적 성격의 심화’ 과제의 경우, 최우선 세부과제로 “국가문화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s Culturais)를 문화경제부문, 사회운동부문, 국가가 공동으로 구성해 문화행정 참여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문화부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과제의 경우, 최우선 세부과제는 “문화 재화·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연방문화부에 더 많은 정책적, 재정적 능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2-8〉 7대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최우선 세부 과제
1	문화 다양성의 인정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라 브라질의 법과 제도의 개혁
2	문화 접근권의 제고	〈국가 도서 및 독서 계획〉을 통해 독서문화발전 및 포르투갈어 문화진흥
3	문화 경제의 진흥	문화 벤처기업가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문화사업의 신모델에 대한 투자
4	문화 정책의 교육정책과 방송 정책과의 연계 강화	문화를 교육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삼을 것 브라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지역화 장려
5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의 개발	지원을 받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지원 요청의 다양한 목적을 고려할 것
6	문화행정의 참여적·협력적 성격의 심화	국가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경제부문, 사회운동, 국가가 공동협력 강화
7	문화부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연방문화부의 정책적, 재정적 능력 신장

4. 브라질 지역문화정책

가. 기관

1) 연방문화부

- 연방문화부 정책은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역적 격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수도 브라질리아는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브라질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은 남부 지역(상파울루, 리오 데 자네이루 등)이며 가장 낙후한 지역은 북동부 지역과 아마존 지역임
 - 전통적으로 브라질 연방 정부의 문화 자원은 상파울루와 리오 데 자네이루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음. 룰라 정부 집권 이전에 연방정부 문화자원의 80%가 두 지역에 분배되었음. (브라질연방문화부, 2007)
 - 연방문화부는 북동부 지역을 비롯한 낙후 지역에 문화예산을 지원하

기 위해 문화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예산의 점진적인 증액은 지역균형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음.

- 문화부가 설계한 많은 사업들이 문화 기본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낙후 지역에 대한 문화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강화되어 왔음
 - 문화지원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공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지역문화기관

- 브라질은 연방국가로 수도 브라질리아와 26개 주(Estado)로 이루어져 있음. 각 주마다 문화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각 주마다 문화담당부서의 위상과 성격은 다양함
- 연방문화부의 위상강화는 지방정부의 문화담당기관의 위상에도 영향을 주어 전국적으로 문화담당기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문화 예산도 증액되고 있음

3) 바이아 주 문화부의 사례

- 북동부 지역의 바이아 주의 경우, 문화담당기관은 교육문화부(Secretaria da Educação e Cultura), 문화관광부(Secretaria da Cultura e Turismo)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오다가 2006년에 문화부(Secretaria de Cultura)로 확정되었음.
- 명칭변경은 문화정책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정책이 교육정책의 일부였다가, 관광산업(바이아 주는 관광산업이 아주 강한 지역)에 기여하는 부문으로 간주되다가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바이아 주의 문화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현재 주정부 총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바이아 주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자 함.

제 3 장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 사례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 멕시코의 과나화또

1. 과나화또 개황

가. 개관

-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과나화또 주의 수도 과나화또(Guanajuato)시는 인구 15만의 소도시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 1546년에 설립된 광산 도시(국가지리통계청(INEGI), 2005)
 -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식민지 풍 도시로 스페인 부왕령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의 가장 중요한 광산업의 중심지였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음.
 - 1810년 발발한 멕시코 독립전쟁의 무대이기도 했으며, 공화정 지지 자유파와 왕정 복구 보수파 간의 전쟁 기간 중이었던 1858년에는 자유파의 임시 수도였음.

나. 문화

- 스페인 제국 황금세기(16~17세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많은 도시로 유네스코(UNESCO)는 1988년에 과나화또 도심지와 시 주변 광산지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음.
- 전통악단 에스투디안띠나(estudiantina)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중세 시대 의상을 착용하고 주로 현악기를 연주하는 전통악단임. 과나화또의 중등·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에스투디안띠나 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문악단들이 도시를 순례하며 연주행사를 벌임.
- 세르반테스 도시
 - 과나화또대학의 대학연극단(Teatro Universitario)은 1953년 처음으로 세르반테스 막간극을 과나화또 야외광장에서 상연하였는데 이는 곧 도시의 문화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여기서 비롯된 ‘국제 세르반테

스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는 과나화또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알리는 큰 공헌을 하였음.

- 1987년 돈끼호떼 도상학 박물관(Museo Iconográfico del Quijote)이 개인소장품의 기부와 과나화또 주정부의 후원으로 개관하였음. 이 박물관에는 돈끼호떼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이 80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선 세계 최초의 박물관임.
- 1987년 국제 세르반테스 콜로키움(Coloquio Cervantino Internacional)이 창설되어 2007년 18회를 맞을 때까지 세르반테스 관련 학술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고 2003년에는 돈끼호떼 도상학 박물관 부설 세르반테스 연구원(Centro de Estudios Cervantinos)은 돈끼호떼 관련 문헌학과 도상학 연구를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음.

○ 축제의 도시

-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를 비롯해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음.
- 연방문화기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과나화또 주 문화기관 주문화원(Instituto Estatal de la Cultura)이 2003년 창설하여 과나화또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 인형극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Titerías)와 1998년 과나화또 시청이 창설하여 과나화또 시 곳곳의 카톨릭 교회들에서 연주회를 갖는 국제오르간축제(Festival Internacional de Órgano)등이 축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표 3-1〉 과나화또 개황

구분	내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중부 과나화또 주의 주도 ○ 인구 15만의 소도시

구분	내용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6년 창건된 광산 도시 ○ 스페인 부왕령 시대 광산업의 중심지 ○ 1810년 멕시코 독립전쟁의 무대 ○ 1858년 자유파의 임시 수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1988) ○ 중세 도시 ○ 세르반테스 도시 ○ 축제 도시

2. 과나화또 문화 정책

가. 기관과 예산

- 시문화담당기관은 과나화또 시청 문화국(Dirección Municipal de Cultura)임.
- 시 문화예산은 2007년 5백만 페소(약 5억원)로 시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함.

나. 정책

1) 개요

- 2006년 취임한 에두아르도 로메로 히스(Eduardo Romero Hicks) 신 임시장이 수립하여 발표한 <시정계획(Propuestas)>의 ‘문화 발전’ 내용과 시청 문화국의 <2007년도 사업계획(Programa Anual)>에 담긴 시 문화 정책을 종합·분석하여 7대과제로 요약하였음.
- 과나화또 시는 문화 정책을 사회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요소”로 여기고 있음.
 - <시정계획>에 담겨 있는 사회발전정책의 종합목표는 “시민들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이고 문화정책의 개별 목표는 “전통문화와 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의 개선”임.

2) 주요 내용

7대 추진 과제

- 문화시설의 개선 확충
-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 문화유산의 진흥
- 지역예술가의 활동 장려
- 문화 전통의 복원 및 진흥
- 독서 문화의 진흥
- 생활공간 속의 문화 활동

7대 추진과제와 주요 사업

① 문화시설의 개선 확충

- 시 문화의 집,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개선

②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 초등학교 순회 예술교육
 - 화가, 음악가 등이 직접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미술 지도 및 음악지도
- 어린이 춤 축제
 - 2006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통 춤 축제를 개최함.
- 어린이 도서관 문화 활동 활성화

③ 문화유산의 진흥

- ‘과나화또, 살아 있는 도시 역사(Guanajuato, historia urbana viva)’ 사업
 - 과나화또의 교회, 극장, 주의회 건물 등 중세 시대의 유서 깊은 건물들의 입구 장식을 가리키면서 의미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④ 지역예술가의 활동 장려

○ 문학상 제정

- 시, 소설(단편, 장편), 에세이 부문으로 심사하여 시상함.

○ 사진 콩쿨 대회 '과나화또, 우리 문화유산(Guanajuato, nuestro patrimonio cultural)' 개최

○ '문화의 집(casa de cultura)' 활동 활성화

- 27인 과나화또 예술가의 공동전시회 등 다양한 지역예술가를 위한 행사를 개최함.

○ 정기적인 춤과 음악 행사

- 매주 금요일 시의 공공장소 산 페르난도 광장(Plaza San Fernando)에서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음악과 춤 행사가 열리고 있음.

○ 지역 작가들의 작품 발간

- 과나화또 시 문화국에서 직접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엮어 책으로 발간함.

⑤ 문화 전통의 복원 및 진흥

○ 지역 요리 복원

- 지역 요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역 요리를 체계화한 책자를 발간하고 요리 행사를 벌임.

○ 전통 장인 진흥

- 도자기, 전통 과자, 피냐따(piñata, 우리의 박 터트리기와 유사한 전통 놀이기구)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함.

○ 전통 축제 계승 활동

- 라 아베르투라 축제(Fiesta de la Apertura)와 산 후안 축제(Fiesta de San Juan)는 홍수 조절을 위해 도시에 댐이 건설된 이후인 1750년부터 댐 수문을 여는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전통행사임. 살아 있는 무형문화재인 전통행사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명절 '망자의 날'(Día de Muertos) 행사

- 매년 11월 1일~2일은 멕시코 전통 명절로 저승의 망자들이 이승 구

경을 온다는 날임. 망자의 날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시각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여 거리 곳곳에 전시하는 행사로 2006년의 경우 15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음.

⑥ 독서 문화의 진흥

○ 세르반테스 작품 진흥

- <라만차의 기사, 돈끼호테>를 아동용 그림책으로 개작해 아동들이 직접 색칠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함.

○ 공공장소에서 도서 무료 배포

- 버스정류장, 공원의 벤치 위에 무료도서를 비치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

○ 독서콘서트

- 공원이나 광장에서 음악과 함께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를 비롯해 다양한 스페인어 시들을 낭송하고 음악콘서트도 함께 여는 프로그램.

○ 독서쪽지 보내기 운동

- 고전 작품의 내용을 담은 쪽지를 만들어 길거리 매대나 가게에 배포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쪽지를 가져가 읽도록 하는 운동

⑦ 생활공간 속의 문화 활동

○ 터널 사진 전시회

- 과나화또 시민의 터널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행사로서 시민들이 터널 속에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 그래피티 캠페인

- 도시 벽의 낙서예술을 뜻하는 그래피티(Graffiti)의 사례를 연구해서 과나화또에 도입할 예정임.

〈표 3-2〉 과나화또의 7대 추진과제와 주요 프로그램

구분	추진과제	주요프로그램
1	문화시설의 개선 확충	○ 시 문화의 집,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개선
2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 초등학교 순회 예술교육 ○ 어린이 춤 축제 ○ 어린이 도서관 문화 활동 활성화
3	문화유산의 진흥	○ ‘과나화또, 살아 있는 도시 역사’ 사업
4	지역예술가의 활동 장려	○ 문학상 제정 ○ 사진 콩쿨 대회 개최 ○ 문화의 집 활동 활성화 ○ 정기적인 춤과 음악 행사 ○ 지역 작가의 작품 발간
5	문화 전통의 복원 및 진흥	○ 지역 요리 복원 ○ 전통 장인 진흥 ○ 전통 축제 계승 활동 ○ 망자의 날 전통 행사
6	독서 문화의 진흥	○ 세르반테스 작품 진흥 ○ 공공장소에서 도서 무료 배포 ○ 독서콘서트 ○ 독서쪽지 보내기 운동
7	생활공간 속의 문화 활동	○ 터널 사진 전시회 ○ 그래피티 캠페인

3.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가. 기원

- 1949년 창설된 과나화또 대학(Universidad de Guanajuato)의 대학연극단(Teatro Universitario)은 1953년 처음으로 산 로케 광장(Plaza San Roque)에서 스페인 황금세기(르네상스의 16세기와 바로크의 17세기의 스페인 제국 문화의 전성기)의 대표적인 문호 세르반테스(1547~1616)의 막간극을 상연하기 시작함.
- 대학연극단의 야외광장 연극상연은 도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무대에 오른 작품들도 세르반테스가 활동한 스페인 황금시대뿐만 아니라

라 근대시대의 극작가의 작품도 포함되어 스페인어 연극 축제로 성장해감.

- 1973년 멕시코 연방정부는 시 연극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제적 성격의 공연예술축제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FIC,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로 명명함.

나. 개요

-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는 매년 10월 초에 시작해서 19일간 멕시코 중부 과나화토 주의 수도 과나화토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2007년 현재 35회를 맞음.
-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로 아비뇽, 에딘버러, 퀘벡 축제와 함께 세계 4대 공연예술축제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 2001년 전 세계 40개국에서 3천 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고 2006년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축제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는 2007년 전 세계 21개국에서 19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참여하였음.
-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는 유럽축제협회(EFA)의 회원이며, 또한 아시아 공연예술축제연맹(AAPAF)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축제에 참가한 작품들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전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는 데 2007년의 경우 20개 주 42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벌임.
- 축제 기간 동안의 거리예술가들의 활동으로도 유명하여 축제기간 평균적으로 60여 단체가 시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시 광장과 공원 등지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함.

다. 기관

-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사무국은 연방문화기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상설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음.

- 축제 준비가 본격화하면 연방·지방의 문화행정기구의 최고 책임자들과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주지사, 시장)이 참여하는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조직 위원회(Comité Organizador del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로 확대 개편됨.
-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조직위 틀 속에서 연방과 지방 정부, 시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상호 협력하여 축제를 운영함.
- 축제 사무국은 전체 프로그램 기획을 맡고, 주정부는 예술가들의 초청자로서 초청예술가들의 접대(숙박과 음식)를 담당하고, 주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전체프로그램에 반영하며, 시문화국은 치안, 환경미화, 응급사태 등에 대처하는 특별반을 구성함. 과나화또 대학은 학내 시설을 축제 무대로 제공하고, 대학의 예술가들도 축제에 참여함.

라. 예산

- 2007년 35회 축제의 경우 총 6천 6백만 페소(한화로 약 66억원)로 국가문화예술위원회 4천만 페소, 주정부 6백 만 페소, 민간후원자 2천만 페소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 문제는 축제 발전의 제약 가운데 하나이다. 멕시코는 문화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을 초청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총감독 미니 까이레(Mini Caire))

마. 프로그램

-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는 전통적으로 연극, 오페라, 음악, 무용 등 공연 예술 장르의 수작을 무대에 올리지만 시각예술, 영화예술까지 두루 포괄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예술관련 학술행사,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벌임.

- 상업성을 배제하고 작품의 질을 최우선 선정기준으로 삼지만,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망라하여 두루 초청하며, 최근에는 대중적인 장르까지 두루 포괄함.
- 2007년 축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 문화프로그램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배치한 것임. 2007년 축제프로그램은 음악, 연극, 무용, 어린이, 시각예술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어린이는 미래의 관객들이다. 또한 아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며 편견이 없는 가장 개방적인 관객이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국제세르반테스축제 총감독 미니 까이레(Mini Caire))
- 2006년부터 국제세르반테스축제는 ‘문화적 관광’ 담당기관 국립인류학 역사학연구원(INAH)과 협력해 축제와 관광을 결합시킨 문화관광패키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음.
 - "세계문화유산 과나화또를 비롯해 이웃 도시들을 관광하고 축제에서 공연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외국관광객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국제세르반테스축제 총감독 미니 까이레(Mini Caire))

바. ‘새 시대를 위한 축제’ 전략

1) 배경

- 2000년 72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멕시코 사회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시대를 맞게 됨.
- 축제 조직위원회는 시대의 변화를 축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1년 ‘새 시대를 위한 축제’의 ‘2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했음.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사무국, 2001)

2) 내용

〈2대 전략 방향〉

1. 참여적이고 창조적이며 공정하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할 것.

2. 다양한 문화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장려하고, 미래를 감지하고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구체적인 사업

- 주빈국, 주빈주 프로그램 도입
- 어린이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설치
- 과나화또 주 문화 진흥

3) 분석

- 주빈국, 주빈주 프로그램 도입
 - 2001년~2005년까지 멕시코를 5개 문화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문화권역을 대표하는 주를 주빈주로 초대하고 세계를 5개 문화권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국가를 주빈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2001년 멕시코 동남부 지역의 베라끄루스 주가 주빈주로 초대되었고 오세아니아 대륙의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음.
 - 세계 각 국의 예술작품을 체계적으로 멕시코에 소개하기 위해 주빈국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멕시코 지역문화의 활력을 북돋고 멕시코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빈주 프로그램을 도입함.
 - 세르반테스 축제 조직위는 주빈국, 주빈주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2007년의 경우 주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고, 주빈주는 멕시코 중부 산 루이스 뽀또시였음)
- 어린이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 “예술 창조의 새로운 언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음.
 - 어린이 문화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프로그램 5개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설치
 - 예술가들과 관객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해서 2001년 처음으로 축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함.
 - 축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영향으로 참가 작품의 경향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 고급예술은 물론이고 대중적인 장르까지 두루 포괄하여 축제 참가 작품의 다양화가 이뤄짐.
- 과나화또 주 문화 진흥
 - 과나화또 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축제의 활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웃 도시들에서도 축제 기간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벌이고 축제 참가작이 공연을 펼침.

사. 축제와 도시발전

- 문화 복지
 - 2006년의 경우 축제의 객석 점유율은 90%대인데 전체 관객의 70%는 과나화또 시민이 차지함. 즉 축제가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과나화또 시 거주자를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 운영해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노인, 학생, 아동, 교사를 위한 할인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접근권을 제고하고 있음.
- 문화 생산 진흥
 - 시 문화국은 세르반테스 축제에 시 예술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세르반테스 축제는 멕시코 예술가들과 외국 예술가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소득 상승
 - 축제는 도시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2006년 축제 기간(19일)의

관광 소득 6천 3백만 페소(약 63억 원), 2007년 축제 기간 관광소득 7천만 페소(약 70억원)로 예상.

○ 도시 문화정체성의 강화

- 2005년 스페인의 카스티야-라만차 유네스코 센터(Centro UNESCO Castilla-La Mancha)는 과나화또 시에 “아메리카의 세르반테스의 수도(Capital Cervantino de América)”라는 칭호를 수여하였음. 이로써 과나화또는 “세르반테스의 도시”라는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음.
- “과나화또는 1940년대만 해도 사라질 뻔한 도시였다. 광업은 쇠퇴했고 인구는 격감했다. 1953년에 시작된 대학연극단의 행사와 1973년에 출범한 세르반테스 축제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과나화또가 문화도시로 재기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과나화또 시 문화국장, 헤수스 안토니오 보르하(Jesús Antonio Borja))

4. 문화도시로서 과나화또

가. 도시 재생과 문화의 역할

- 과나화또 시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 ‘누에바에스빠냐(Nueva España)’ 부왕령의 가장 중요한 광산 도시로서 영화를 누렸으나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산업도시들이 등장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음.
- 1953년부터 시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한 세르반테스 막간극 상연행사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기에 연방정부가 지원하여 1973년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가 탄생했으며 1987년 민간의 기부와 주정부의 후원으로 돈끼호페 도상학 박물관이 개원하였고, 돈끼호페 도상학 박물관은 같은 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세르반테스 콜로키엄을 창설했으며 2003년 박물관 부설 세르반테스 연구원이 개원하였음.

- 예술가, 지식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연방·주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세르반테스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이 도시는 “아메리카의 세르반테스 수도”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수여받으며 문화 도시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음.
- 중세시대 신학교의 전통적인 악단 에스투디안띠나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시의 대다수 교육기관이 에스투디안띠나를 창단해 지원하고 있어 ‘에스투디안띠나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였음.

나.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의 역할

- 과나화또 예술가들과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세르반테스 막간극 상연 행사가 시작되어 과나화또는 문화도시로서 재생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았고 연방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였음.
 - “축제가 과나화또를 만든 것이 아니다. 과나화또가 축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총감독 미니 까이레(Mini Caire))
- 축제는 문화 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문화생산 활동을 진흥하는 데 기여했으며 시의 소득상승에 기여하였고 시민들의 문화 의식을 바꾸는 데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 “과나화또는 아주 보수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축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배웠으며 지금은 문화적으로는 아주 관대한 곳으로 바뀌었다.”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 집행국장 로우르데스 바에스 메사 (Lourdes Báez Meza))

다. 공공기관의 역할

- 시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의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진흥하는 것임.
 - 전통명절 ‘망자의 날’을 모티브로 한 시각예술 작품을 도시 곳곳의 잔디밭, 광장, 건물, 거리에 전시한 행사는 전통명절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시 문학상공모와 사진 콩쿨 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시 문화의 집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과나화또 출신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를 마련하고 있음.
- 시 문화국은 터널도시, 골목도시라는 시의 환경적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시 전체를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창의적인 문화실험을 벌이고 있음.
 - “우리는 시민들이 거리를 거닐면서 도시를 늘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 도시 곳곳에서 문화와 마주치기를 바란다.” (과나화또 시 문화국장 헤수스 안토니오 보르하(Jesús Antonio Borja))
- 시 문화국과 주 문화원, 연방정부의 협력으로 세르반테스 국제 축제는 물론이고 국제인형극축제, 국제오르간 축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2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1. 부에노스아이레스 개황

가. 개관

- 아르헨티나 수도로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 인구 약 280만 명으로 아르헨티나 최대의 도시(국가통계센서스청(INDEC), 2001년)
- 1536년에 스페인 식민자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1776년 리오 델 라 플라타(Río de la Plata) 부왕령의 수도가 되어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부 지역 중심도시로 부상하였음.
- 19세기 말~20세기 초 아르헨티나 경제번영에 힘입어 프랑스의 파리를 모델로 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도로가 정비되고 대규모 건물이 신축되고 공공서비스가 개선되었음. 1913년에 이베로아메리카 지역(라틴

아메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의 양국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괄하는 용어)에서 최초로 지하철을 건설하였음.

나. 문화

-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 후보(2008년 결정)이며, 세계적인 여행지 <트래블 앤 레저(Travel & Leisure)>가 세계 7위의 여행 도시로 선정하기도 하였음.
- ‘탱고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탱고 관련 세계적인 행사들은 물론이고 영화, 공연예술 등의 국제 축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음. 최근 시 문화부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내걸고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표 3-3〉 부에노스아이레스 개황

구분	내용
소개	○ 아르헨티나 수도 ○ 인구 약 280만 명
역사	○ 1536년 설립된 도시 ○ 1776년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령의 수도 ○ 19세기 말~20세기 초 ‘남미의 파리’로 도시 개조
문화	○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 후보(2008년 결정) ○ 세계적인 여행 도시 ○ 탱고의 발상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수도’

2.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 정책

가. 기관

- 시정부의 문화기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정부의 문화부 (Ministerio de Cultura)임

나. 예산

- 시정부 전체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문화부 공무원 임금, 문화부 발주 공사 포함)은 2006년 3.31%, 2007년 3.14%임.
- 총액 기준은 2006년 276,636,118 페소, 2007년 310,426,178페소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시 문화예산이 비율과 총액 양면에서 연방 문화원 예산을 상회함.

다. 정책

1) 개요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문화전략계획(Plan Estratégico de Cultura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는 시의 중기 문화계획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문화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을 제출했음.
 - 2001년 말의 사회경제위기로 인해 <전략계획>의 후속작업이었던 구체적인 과제 도출과 과제 실천 프로그램 기획이 중단되었지만 <전략계획>의 문제의식은 이후 시 문화 행정의 주요한 지침이 되었고, '라틴아메리카 문화수도'라는 문화행정 종합 목표로 구체화되었음.
 - <전략계획>의 작성을 위해 문화계 인사 130명과 30개가 넘는 문화관계기관들이 참여했음.
- <2006년도 문화 시정 보고서(Informe de Gestión 2006)>는 실비아 파흐레(2006~2007) 문화부 장관 재임 시절의 문화 행정을 잘 보여주는 문서임.

2) 내용

<부에노스아이레스시문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 <전략계획> 작성의 방법론 3원칙
 - 시 문화부의 정치적 리더쉽

- 문화계 인사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 전략계획 개발과 도출의 기술적 엄격성
- 미래 환경 분석
 - 주변부 국가의 문화 환경 전망
 1. 주변부 국가 국가들의 문화 생산, 문화유산 재평가 및 보호에 투여할 자원의 심각한 제약
 2. 강력한 문화 상품화 경향
 3. 대중언론매체의 독점화로 인해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강요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경향
 4. 최첨단 기술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
 5. 주변부 국가에서 중심부 국가로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이민
 - “거주할 만한” 도시의 조건
 1. 개인과 가족의 기본 욕구 즉 고용, 주택, 문화, 교육, 건강, 치안 등을 만족시키는 도시
 2. 질 높은 환경 즉 깨끗한 자연 환경, 안전한 사회 환경을 유지하는 도시
 3. 시민 일일 이동거리를 줄이고 지리적 이동성을 높이고 거리와 광장을 사회적 공간으로 회복하는 도시
 4.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높은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
 5.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도시
 6.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적·참여적 신경제모델과 전통적인 개발모델을 혼합하여 지역(남미지역)경제와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 도시
- 현재 도시 문화 정책

대전제 : 도시발전과 문화 발전이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정책의 세 가지 축 :

 - 공공장소를 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예술의 다양화 증진
- 유·무형 문화유산의 재평가와 복원
- 문화 예산 비중(2000년 통계 비교)
 - 바르셀로나(Barcelona) 4. 70%
 -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4. 17%
 - 상파울루(São Paulo) 1.29%
 - 마드리드(Madrid) 1.18%
 - 멕시코시티(México D.F.) 0.56%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문화 소비-〈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소비실태 및 문화매체 소유 현황 조사〉(2000)
 - 음악(라이브연주) 1주 1회 55.5%, 1개월 1회 41.7%,
 - 영화 1주 1회 72.8%, 1개월 1회 26.3%
 - 연극 1주 1회 35.0%, 1개월 1회 58.9%
-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 현황 진단 : 결론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어권에서 문화적 명성을 갖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문화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문화발전에 필요한 사상, 창의성, 활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협력이 부족하다.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문화를 도시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 2010 문화비전-창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 및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 중심지”
- 2010 문화비전 7대 추진과제
 - 사전과제 : 시민 참여로 문화비전을 구체화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1단계 : 2002-2006 기반 구축기
 - 제1과제 : 예술가를 양성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과제 : 문화를 생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3과제 : 문화를 전파하고 향유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과제 : 시민 정체성을 만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2단계 : 2007-2010 라틴아메리카 및 스페인어권 세계로 나아가는 시기.

제5과제 : 라틴아메리카 속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6과제 : 스페인어권 세계 속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6년도 문화 시정 보고서〉(Informe de Gestión 2006)의 주요 내용

- 문화에 대한 정의
 - 문화는 사회가 자신의 고유한 역사 속에서 가치를 형성해가는 과정
- 문화 정책의 역할
 - 문화정책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다섯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의 통합
 - 사회의 제 부문과 행위자의 결합
 - 다양성 표현의 보장
 - 경제 발전
 - 사회 전체의 기본적 합의의 표현
- 문화행정의 4대 영역과 과제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의 질적 양적 개선, 지리적인 균형 분배
 - 문화공급 : 수준 높고 다양한 재화의 공급, 신진예술가들의 발굴
 - 문화수요 : 새로운 관객층의 창출, 공간적·사회적·경제적인 접근의 보장.
 - 문화전파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화정보의 제공
- 문화 정책의 종합 목표
 - “라틴아메리카 문화수도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위상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
- 종합 목표 추진을 위한 4대 전략
 - 국가, 기업, 제3섹터 사이의 협력 강화
 - 언론매체(통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문화 전파
 - 라틴아메리카 지역 문화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

- 국제적인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조직화
- 8대 과제
 - 문화 재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 작품의 질, 다양성, 다양한 경향의 작품
 -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와 보존
 - 문화 조사와 문화 전파
 - 예술 교육의 수준 제고.
 - 문화생산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문화행정의 효율화
 -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 8대 과제 실천을 위한 전략
 - 문화 분권, 구 단위 문화 활동 활성화
 - 다양한 시민의 참여 통로 개척
 - 새로운 예술가들의 발굴
 - 문화 홍보 강화와 문화 정보화
 - 문화 활동의 법적 기반 구축

8대 과제 별 주요 문화 프로그램

- ① 문화 재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 빈민지역 오케스트라 콘서트
 - 맹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을 위한 친문대 관람 행사
 -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콘서트 및 책 읽기 행사
 - 이동극장(기차를 연극과 영화를 위한 극장으로 개조함)을 문화시설이 없는 빈민지역에 배치
 - ‘박물관의 밤(La noche de los museos)’ 행사를 열어 박물관을 야간에 완전히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 “사람들이 더 이상 박물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박물관 관련 행사를 많이 벌여왔다. 박물관은 조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박물관의 밤’ 행사가 열렸을 때 하룻밤

에 26만 명의 시민들이 박물관을 찾았다. 아주 멋진 행사였다”(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 장관 실비아 파흐레(Silvia Fajre))

- 스포츠 클럽의 연극 공연 활동으로 새로운 관객 창출
- ② 작품의 질, 다양성, 다양한 경향의 작품
 - 시 소속 문화 공간의 문화 활동 일상화
- ③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와 보존
 -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유 유산 총람 작성(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 고문서 전시회 개최
 - 구 도심지(역사 지구)의 재활성화를 위한 문화 행사 개최
 - “유서 깊은 카페와 주점”(Cafés y Bares Notables) 활성화 프로그램
 - 역사가 오랜 카페와 주점의 회생을 위해서 시정부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문화행사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락 위기에 놓인 카페와 주점의 회생에 기여함.
- ④ 문화 연구와 문화 전파
 - 문화 관련 국내외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
- ⑤ 예술 교육 활동 진흥
 - 역사 건물 복원에 나선 건축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 ⑥ 문화생산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2006년 약 4백 70만 페소(약 1백 5십만 달러)의 메트로폴리탄 학예기금(Fondo Metropolitano de Artes y Ciencias) 조성
- ⑦ 문화행정의 효율화
 - 문화부 조직개편과 문화정책의 체계화

⑧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 40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 시설 개보수에 투자
- 전기발전소를 “음악발전소”로 개조
- 탱고 가수 까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 생가 복원
- 파괴된 인쇄소를 복원해 문화공간으로 개조

3) 분석

〈부에노스아이레스시문화전략계획〉

- ‘〈전략계획〉 작성방법론 3원칙’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듯이 12개의 자문위원회가 작성에 참여함.
 - 공연예술, 조형예술, 영화 및 시청각예술, 문학, 음악, 문화재 등 장르별 자문위원회, 문화와 경제, 문화와 교육, 문화와 인력개발, 문화와 법률, 문화와 언론매체, 문화와 정치 등 영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주변부 국가의 문화 환경 전망’은 “지구화가 가속화하면서 경제적 부와 최첨단 기술이 중심부 국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아르헨티나와 같은 주변부 국가의 문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임. 특히 지구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민사회 건설의 본질적 요소로서 문화 적 정체성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거주할 만한 도시의 조건’은 도시들이 지역무대와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분권화 시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 판단 아래 미래 도시의 조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음.
 - 문화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공동체 형성의 본질적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음.(문화에 대한 광의의 관점)
- ‘문화 정책’을 보면 도시 발전과 문화 발전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대전제 아래 시민으로서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특히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를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활동은 예술 향수권의 확대는 물론이고 시민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문제 의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문화 예산 비중’은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스페인의 주요 문화 도시를 비교하고 있음.
 - 문화 활동으로 유명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 도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브라질의 상파울루,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도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등과 비교하고 있음. 각 국의 통계 작성 방법론이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제출하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문화 소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 현황 진단 : 결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화 현황을 경영학적 방법론(SWOT)을 도입해 내적인 강점과 약점, 외적인 기회와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종합적인 결론임. (부록 2. <부에노스아이레스문화전략계획>을 참조할 것)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자원, 아이디어, 집행력을 갖고 있지만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함으로써 <전략계획> 작성 의의를 재확인하고 있음.
- ‘2010 문화 비전’의 이름은 ‘창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명명했으며 ‘2010 문화비전 7대 추진과제’는 ‘라틴아메리카 및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 중심지’라는 문화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과제로 2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부록 2.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전략계획>을 참조할 것)
 - ‘2010 문화비전 7대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세부과제와 프로그램을 시민참여로 구체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음. 이것이 첫 번째 과제(사전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기반 구축기에 해당하는 1단계 과제(2002~2006)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술인력양성, 문화 생산 활성화, 문화향유진흥, 문화정책성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과제의 성공이 문화비전 실현의 관건이며 2단계 과제의 성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2006년도 문화시정 보고서〉

- 〈2006년도 문화시정보고서〉는 문화에 대한 광의의 문화 관점을 채택하고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문화정책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 ‘문화정책의 역할’에서는 기본적인 역할로 문화적 다양성 진흥을 위해 표현을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문화 정책이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문화, 문화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 행정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문화행정의 영역을 문화 공급(생산)-유통(매개)-수요(향유)로 나누고 문화 향유를 벌어지는 공간으로서 문화시설을 정의하였음.
- 문화정책의 종합 목표 “라틴아메리카 문화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위상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문화전략계획]이 제시한 ‘2010 문화 비전’의 현실화이자 구체화라 할 수 있음.
 - 2001년 아르헨티나 사회경제위기 이후에 아르헨티나 정치의 초점은 사회경제 위기 극복에 맞추어져 있었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는 사회경제 위기를 문화적으로 극복하는 일을 주도하였음.
 - “2001년과 2002년 아르헨티나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였다. 문화가 바로 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몰락한 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 행사에 대규모로 참석했고 예술가들이 문화를 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장관 실비아 파흐레(Silvia Fajre))
 - 2003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집권 이후 서서히 국가경제가 회복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도 자신감을 회복하였음.

- 종합 목표 추진을 위한 4대 전략 가운데 하나 “통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Red de Contenidos Digitales de Patrimonio Cultural)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음.
 -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화를 추진하고 나섰음. 1개월 평균 7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홈페이지 www.acceder.buenosaires.gov.ar)
- 종합 목표 추진을 위한 4대 전략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지역 문화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있음. 남미 지역 문화교류 활동 강화, 라틴아메리카 지역(북중미의 멕시코) 문화교류 활동 강화, 유네스코 국제회의의 등 세계적인 문화교류 활동 강화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표 3-4〉 부에노스아이레스의 8대 과제와 주요 프로그램

구분	추진과제	주요프로그램
1	보편적 접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민지역 오케스트라 콘서트 ○ 장애인을 위한 천문대 관람 행사 ○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콘서트 및 책 읽기 행사 ○ 이동극장 빈민지역에 배치 ○ ‘박물관의 밤’ 행사 개최 ○ 스포츠클럽의 연극 공연 활동으로 새로운 관객 창출
2	작품의 질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소속 문화 공간의 문화 활동 일상화
3	문화유산재평가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유 유산 총람 작성 ○ 고문서 전시회 개최 ○ 구 도심지(역사 지구)의 재활성화 ○ ‘유서 깊은 카페 및 주점’
4	문화 연구와 문화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관련 국내외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
5	예술 교육 활동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건물 복원 노동자 문화교육 ○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문화 교육
6	문화생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트로폴리탄 문화진흥기금 조성

구분	추진과제	주요프로그램
7	문화행정 효율화	○ 문화부 조직개편과 문화정책의 체계화
8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	○ 문화 시설 개보수에 투자 ○ 전기발전소를 “음악발전소”로 개조 ○ 까를로스 가르델(탱고가수) 생가 복원 ○ 인쇄소 복원해 문화공간으로 개조

3. 시 축제 및 문화행사

가. 기관과 예산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는 축제·문화행사 총국(Dirección General de Festivales y Eventos Culturales)을 설치해 주요 축제와 문화이벤트를 관장하도록 함.
- 2007년 시 문화부 전체 예산에서 축제 예산의 비율은 10.86%를 차지함.

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

1) 탱고 축제

- 메트로폴리탄 탱고 춤 경연대회(Campeonato Metropolitano de Baile de Tango)
 - 2003년 시작되어 올해 5회를 맞은 문화행사로 아르헨티나 시민을 위한 탱고 춤 경연대회
- 세계 탱고 춤 경연대회(Campeonato Mundial de Baile de Tango)
 - 2003년 시작되어 올해 5회를 맞은 행사로 국제적인 탱고 춤 경연대회, 2006년의 경우 10만 9천명이 관람하였음.
 - “이 탱고 춤 축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수년전부터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 가령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도시들에서 탱고 붐이 새롭게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문화부가 이같은 행사를 열게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 축제 국장 레네 마르셀로 그로스만(René Marcelo Grosman))

-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축제(Festival Buenos Aires Tango)
 -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 9회를 맞은 탱고 음악 축제로 2006년 17만 5천 명의 시민이 참가하였음.

2) 국제독립영화축제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Independiente)

- 1999년에 시작되어 2007년 9회를 맞은 영화축제로 2007년 47개국이 참가했고 2200명이 넘는 아르헨티나 내외의 영화인들이 참가했고, 26만 명의 시민들이 관람했음.

3)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축제 (FIBA, Festival Internacional de Buenos Aires)

- 1997년에 출범해 2년에 한 번 씩 열리는 축제로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의 주요 장르는 물론이고 시각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행사임. 2005년의 경우 10만 5천명의 관객이 참가했음.

4) 열린 스튜디오(Estudio Abierto)

- 새로운 개념의 시각예술 문화 행사로 2000년에 시작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서 깊은 지역들에서 작업하는 시각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지역별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사.
 - 창작자와 수용자의 거리를 좁힌다는 참신한 발상이 시민의 호응을 얻어 도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음. 2006년의 경우 11만 7천명의 관객이 참가하였음.

다. 축제의 효과

-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 탱고 춤과 음악 축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갖고 있는 ‘탱고의 발상지’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강화함.

- 다양한 장르로 축제를 확대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국제적인 문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화 활동 진흥
 - 부에노스아이레스 예술가들의 문화 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축제들은 ‘웃 위의 금 브로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축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문화 활동의 총화에 불과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문화부 축제국장 레네 마르셀로 그로스만)
- 문화 복지
 -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무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렴한 입장료로 시민 문화 접근권을 제고하고 있음.

4. 문화도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도시 발전과 문화의 역할

- 20세기 초 이민노동자들의 문화 탱고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최근 시 문화부 주도로 탱고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탱고의 요람’라는 명성을 복원하여 강화하고 있음.
- 2001년 국가위기 시기에 도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은 도시 공공장소를 활발한 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바꾸어내고 시민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시민공동체를 강화하였음. 이것은 문화를 사회 위기 극복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은 사례임.
 - “그 시절 정치, 경제는 파탄 났지만 문화는 시민의 피난처였다. 시민들은 문화가 위기를 헤쳐 나갈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 장관 실비아 파흐레(Silvia Fajre))

나. 공공기관의 역할

- 시 문화부는 시의 문화 생산물을 종합하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문화

창조활동을 진흥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제고하여 ‘라틴아메리카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01년 국가 위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 문화부는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펼치기 시작하였음.
-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유서 깊은 카페와 주점 사업’을 도입해 시민의 생활 문화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도시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바꾸었음.
- ‘박물관 야간 개방’ 등 도시 문화 공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는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도입해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

제3절 브라질의 살바도르

1. 살바도르 개황

가. 개관

- 브라질 동북부에 위치한 바이아 주의 수도
- 인구 약 245만 명으로 인구 순서로 브라질 3위 도시(국가지리통계청(IBGE),2000)
- 1549년 포르투갈 식민자들에 의해 창건된 도시
- 1549년부터 1763년 리우 데 자네이루로 천도할 때까지 브라질의 제1수도
- 식민지 시대 사탕수수 농업의 중심지였고 흑인노예 수입 항구였음.

나. 문화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1985)
-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탄생지
-삼바(samba), 까뿌에이라(capoeira), 깡동브레(candomblé) 등 아프로

브라질 문화의 전통과 현대 모두가 살바도르 시에서 탄생하여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요람’으로 불림.

〈표 3-5〉 살바도르 개황

구분	내용
소개	○ 브라질 동북부 바이아 주의 주도 ○ 인구 약 245만 명
역사	○ 1549년 설립된 도시 ○ 1549년~1763년 브라질의 수도 ○ 식민지 시대 사탕수수 농업의 중심지, 흑인노예 수입 항구
문화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1985) ○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요람’

2. 살바도르 문화 정책

가. 기관과 예산

- 살바도르 시의 문화담당기관은 교육문화부(Secretaria Municipal da Educação e Cultura) 산하의 그레고리우 지 마투스 재단(Fundação Gregório de Mattos)이 문화담당기관임.
- 그레고리우 지 마투스 재단의 예산 통계나 시 문화예산 관련 통계 등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음.

나. 정책

1) 개요

- 살바도르 시는 안토니우 임바사이(Antônio Imbassahy) 시장 재임 시절(1997~2004) 처음으로 시의 <종합발전계획>에서 문화를 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언급하였음. (살바도르 시청, 2004)
 -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바이아 주와 살바도르 시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자연환경과 문화가

기여해 온 것을 재확인했으며 문화가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음.

- 당시 시청이 빈민가 주택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벌였을 때 ‘문화적 환경미화’ 개념을 도입하여 빈민가의 벽을 예술기법을 도입해 장식하였음.
- 그레고리우 지 마투스 시 문화재단의 내부 문서 〈비전과 기획 2005/2006(Documento de Visão e Planejamento 2005/2006)〉은 2005년도에 새로 취임한 주앙 앙히끼(João Henrique) 시장의 문화 행정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문서로 2005년의 문화 사업을 평가하고 2006년의 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2007년 발표한 〈2007 문화의제 (2007 Agenda Cultural)〉는 도시 설립 458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가한 것임.

2)내용

〈비전과 기획 2005/2006〉의 주요내용

- 문화 미션
 - 시 문화 행정의 가장 큰 문화미션은 문화 발전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 발전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로 문화생산물을 산출하는 것.
- 문화에 대한 접근법(광의의 관점)
 - 문화는 상징적인 표현물이다.
 - 다양한 문화 전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한다.
 - 문화는 부를 산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문화는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에 기여한다.
- 문화 운동
 - ‘3차원적 문화 개념’은 문화를 운동으로 접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문화는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운동이다.
 - 문화 행정은 이 같은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문화와 유토피아
 - 문화는 유토피아를 향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펼칠 수 있는 공간
- 문화 민주화
 - 문화를 민주화하는 것은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한다.
 - 문화 내용과 형식의 획일화에 대한 반대하는 것, 문화적 다양성을 지킨다.
 - 고급문화/대중문화, 지역문화/국가문화/세계문화, 전통문화/현대문화/탈현대문화 사이의 대화를 장려한다.
- 문화 정책의 중요성
 -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문화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 문화 부문에 대한 문화 정책을 체계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진 과제
 - 시민 참여 : 시민네트워크 구성
 - 예술 진흥 : 시 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입
 - 문화유산 진흥 및 독서문화진흥 : 시 역사 문서보관실, 공공도서관, 마을 도서관 활동 강화
 - 문화교류:국제교류 활성화
 - 문화포럼 : 문화정책과 문화에 대한 학술회의 강화

추진과제별 주요프로그램

① 시민 참여

- 빈민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Orquestra Sinfônica da Juventude)
 - 9세~17세의 빈민가 청소년 130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으로 시 문화 재단과 시 사회개발부의 협력으로 창단했고 시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도록 지원.
- 시민문화네트워크 조직
 - 살바도르 시 빈민가 30개 지역의 시민문화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연방문화부 후원 ‘문화 지점(Pontos de Cultura)’사업과 결합시키는 프로그램

- ‘문화 정류장(Estação Cultural)’사업
 - 시 문화재단과 바이아 연방 대학(Universidade Federal da Bahia)이 협력해서 개발한 프로그램
 - 연방 메세나 법안의 지원을 받아 도시의 버스 정류장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
- 살바도르 문화 사업 회의(Encontro de Projetos de Cultura em Comunidade de Salvador) 개최
 - 문화 활동을 주제로 살바도르 시 시민 지도자들이 모여 2007년 2회 행사를 가졌음.

② 예술 진흥

- 문화 인센티브 조례 제정(2005)
 - 살바도르 시청 재무국과 협력하여 제정한 시 조례. 시 메세나 법안으로서 프로젝트 공모 방식으로 문화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시 문화 기금(Fundo Municipal de Cultura) 창설(2005)
- 지역예술가 활동 장려
 - 시 도로와 광장에서 지역화가, 사진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활성화 함.
- ‘도시의 심장에서(No Coração da Cidade)’ 사업
 - 시 중심가에서 신진, 기성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문화 행사를 펼치도록 지원함.
- ‘살바도르 만세! 음악 축제(Festival de Música Viva Salvador)’
 - 살바도르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 삼바에서 힙합까지 다양한 음악장르가 참가하는 축제를 2007년에 개최함.

③ 문화유산 진흥 및 독서문화진흥

- 민속종교 깡동브레 성소 보존 사업
 -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 ‘까사 브랑까(Casa Branca)’ 성소를 비

롯한 다양한 깡동브레 예배소의 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민속공예품 장인 양성 사업
 - 빈민지역 시민들을 민속공예품 장인으로 양성하고 장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시는 장인들의 생산품을 공예품 박람회를 열어 전시하도록 지원하여 상품화에 기여하였고 외국수출도 가능하게 하였음.
- ‘기억 보존(Preservação da Memória)’ 사업
 - 살바도르 시 각 지역의 유래, 문화, 역사 등을 체계화하여 지역의 유·무형 문화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
- 민속 문화 장인 사업
 - 살바도르 각 지역의 전통 장인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 독서 문화 진흥 -2007년 독서의 해 캠페인
 - 아동·청소년 독서 진흥을 위한 시인과 피아니스트가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콘서트를 개최함.
 - 시 의회가 독서의 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시 학교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 살바도르에 대한 시를 수집해서 시디로 제작 배포
 - 도서와 독서문화 박람회 개최
- ④ 문화교류
 - 세네갈, 앙골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문화 교류
 - 아프리카-브라질 축제(Festival Africa-Brasil)
 - 2005년 살바도르 시와 아프리카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였음.
 - 포르투갈과의 문화 교류 활성화
- ⑤ 문화포럼 : 문화정책과 문화에 대한 학술회의 강화
 -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 문화회의(Conferência Municipal de Cultura) 개최

- 2007년 연방 문화부 차관 초청 학술회의(주제-문화와 사회적 책임)
- 2007년 브라질 문화 행정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주제-문화와 시민)
- 아프리카계 브라질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3)분석

- <비전과 기획 2005/2006>은 브라질 2003년에 취임한 룰라 행정부의 ‘3차원적 문화개념’을 받아들여 문화를 정의하고 있음.
- 시 문화재단은 연방문화부의 지역시민문화진흥정책을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연방문화부는 그간 시민들 스스로 펼쳐온 자발적인 문화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더욱 진흥하기 위해 현재 ‘살아 있는 문화(Cultura Viva)’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이 캠페인의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 지점(Pontos de Cultura)’사업으로 지역의 문화동아리들이 소속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업을 포상함.
 - 연방문화부의 이같은 시민 문화 활동 진흥 정책을 ‘문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문화와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시 문화 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개념으로 문화를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시 문화재단은 ‘문화 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3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음.
 -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권 보장(문화 향수의 민주주의), 문화적 다양성 수호는 문화적 획일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에서 나아가서 비판적 문화에 대한 존중까지 포괄하고 있음.
 - “고급문화/대중문화, 지역문화/국가문화/세계문화, 전통문화/현대문화/탈현대문화 사이의 대화를 장려한다”는 것은 문화 영역에 존재하는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여 ‘고급문화/대중문화, 지역문화/국가문화/세계문화, 전통문화/현대문화/탈현대문화’ 등 다양한 문화 사이의 활

발한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함.

〈표 3-6〉 살바도르의 5대 추진과제와 주요 프로그램

구분	추진과제	주요프로그램
1	시민 참여	○ 빈민지역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 시민문화네트워크 조직 ○ ‘문화 정류장’ 사업 ○ 살바도르문화사업회의 개최
2	예술 진흥	○ 문화 인센티브 조례 제정(2005) ○ 시 문화 기금 창설(2005) ○ 지역예술가 활동 장려 ○ ‘도시의 심장에서’ 사업 ○ ‘살바도르 만세! 음악 축제’
3	문화유산 진흥 독서문화 진흥	○ 민속종교 깡동브레 성소 보존 사업 ○ 민속공예품 장인 양성 사업 ○ ‘기억 보존’ 사업 ○ 민속 문화 장인 사업 ○ 2007년 독서의 해 캠페인
4	문화교류	○ 아프리카 지역과의 문화 교류 ○ 아프리카-브라질 축제 ○ 포르투갈과의 문화 교류 활성화
5	문화포럼	○ 시 문화회의 개최 ○ 연방 문화부 차관 초청 학술회의 ○ 브라질 문화 행정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 ○ 아프로 브라질 문화의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3. 살바도르의 전통 행사

1) 종교 행사

○ 카톨릭 종교 전통

- 성주간, 성탄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카톨릭 관련 전통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음.
- 카톨릭 전통에 아프리카 기원 종교 깡동브레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음.

○ 카니발(사육제)

- 살바도르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 축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2백 만 명이 참가하고 있음.

“바이아는 축제의 땅이요. 살바도르는 바로 그 축제가 펼쳐지는 최고의 무대이다” (살바도르시청, 2004)

- 1884년에 살바도르 카니발 전통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거리 축제와 시가 행진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음.
- 1895년 처음으로 민속 종교 의상을 입고 흑인들이 타악기를 연주하며 행렬에 참가하였음.

○ 아프리카 종교 전통

- 시 전체에 민속 종교 깡동브레 의식을 거행하는 예배소 2332개가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종교문화행사가 펼쳐짐.
- 대표적인 행사 예만자 축제(Festa de Yemanjá)는 2월 2일 바다의 신 예만자를 숭배하는 민속 종교 최대의 행사.

2) 기념 행사

○ 7월 2일 개선 기념일

- 1822년 동 페드루 1세(Dom Pedro I)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벌여 1823년 7월 2일 독립군을 이끌고 살바도르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

○ 도시 창건 450주년 기념일

- 1549년 최초의 총독이 살바도르에 도착하여 살바도르가 포르투갈 제국의 식민지 브라질의 수도로 정해진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1999년에 성대하게 개최되었음.

○ 바이아 만의 발견 기념일

- 1501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4. ‘신물(神物)의 집(Casa dos Objetos Mágicos)’ 사업

가. 개요

- 연방문화부가 미주개발은행(IDB)과 유네스코(UNESCO)의 재정적·정책적 협력을 받아 살바도르 시에서 추진하는 민속공예학교 사업.
- 연방문화부는 브라질 역사 유산의 보존과 복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브라질 지방의 유·무형 유산을 보존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살바도르의 ‘신물의 집’도 그같은 일의 일환임.
- 이 사업은 연방정부가 재정의 70%를 지원하고 사업 제안자인 문화생산 법인 마이앙가(Maianga)가 30%를 투자하는 관민공동투자방식임.

나. 추진 과정

- 병원이나 감옥이었다가 1964년 군사쿠데타 이후에서 정치범들의 고문 장소로 쓰였던 건물을 2006년 민속 공예 학교 건물로 개조하였음.
- 아프리카 기원 종교 깡동브레 의식에 쓰이는 장신구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민속공예품은 살바도르 시에서 매년 열리는 ‘문화시장(Mercado Cultural)’에 참가해 전시회를 가졌음.

5. 문화도시로서 살바도르

가. 도시 발전과 문화의 역할

- 살바도르 시는 포르투갈 제국 식민지 시대 브라질의 제1수도였으나 1763년 리우 데 자네이루로 수도가 천도되고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시작되어 브라질 남부 지역에 산업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여 브라질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낙후한 대도시로 전락하였음.
- 살바도르 시는 ‘아프로브라질 문화의 요람’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온 종교행사와 기념행사 등을 통해 도시의 문화 전통이 계승되어 오면서 문화전통의 현대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 1950년대와 60년대에 ‘아프로브라질 문화운동’이 살바도르를 비롯한 바이아 지역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외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켜 전개되면서 도시 문화 전통이 혁신되었음. 살바도르는 현대 아프로브라질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브라질 음악에서 살바도르 시가 주도하는 ‘바이아 음악’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았음.

나. 공공기관의 역할

- ‘빈민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해 보여주듯이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음악은 시민정신이 형성되는 곳이며 음악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살바도르시청, 2004)
- 사회통합과 소득 창출을 결합하기 위해 ‘신물의 집’ 사업과 ‘민속공예품 장인 양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지점’ 사업이 잘 보여주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
- 살바도르 시의 전통을 보존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음.

제 4 장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론

제1절 라틴아메리카 도시문화정책의 형성

1.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정책 환경

가. 정치

○ 민주화

- 83년 아르헨티나, 85년 브라질 등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주화는 90년 칠레의 민주화를 거쳐 2000년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룬 멕시코를 끝으로 완료되었음. 각 국에서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며 시민권이 회복되었음.

○ 좌파 집권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 칠레를 시작으로 2002년 브라질, 2003년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주요 국가에서 중도 좌파 정부가 대거 집권하였고 브라질에선 2006년, 아르헨티나에서는 2007년 각각 재집권에 성공하여 정치적 변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2006년 멕시코에서 멕시코 정치사상 처음으로 좌파 야당이 제1야당으로 성장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정치적 변화가 확대되었음.
-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좌회전’의 배경은 80년대 초반부터 라틴아메리카지역에 적용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이중구조(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임.
- 집권한 좌파 정당들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정당들이었으며 1980~90년대 중남미에 강도 높게 적용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면서 강력한 야당세력으로 성장하였음.
- 중남미 대륙에서 집권한 좌파세력들은 크게 두 가지 정치적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1998년 베네수엘라, 2006년 볼리비아, 2007년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서 집권한 좌파정당과 지도자들은 쿠바형 사회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음. 반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집권에 성공한 좌파세력은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수용하되 이를 민주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했으며, 선거민주주의

정착과 법적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시민권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민주적 좌파’로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 시민 민주주의

- 21세기에 들어서 집권한 좌파 정부들은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법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교육, 건강, 고용, 주택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부상하였음.

○ 시민권으로서 문화

- 창작·표현의 자유, 사상·언론의 자유 등 문화관련 시민권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보장은 물론이고, 문화 자체를 시민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음.

나. 경제 정책

○ 탈신자유주의정책

- 80년대~90년대 내내 고강도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부는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민주화’를 내걸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의 급진적인 단절보다는 현실주의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한 자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현실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였지만 사회경제적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 사회정책

○ 빈곤과 불평등

-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소득분배와 소득격차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으로 2003년 현재 전체 인구의 43.9%가 빈민층이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552로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수치이며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소득격차는 30배에 달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각 국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빈곤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제연합개발계획, 2004)

○ 불균형

- 사회경제적 격차(계층적 불균형)는 지리적 격차(지역적 불균형)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멕시코의 북부/남부, 아르헨티나의 중부/북부, 브라질의 부유한 남부/동북부 등은 부유한 지역/가난한 지역의 분할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살바도르 등과 같은 대도시 내부에서 이 같은 사회경제적 성격의 공간적 분할도 뚜렷하여 빈민지구와 부유한 지구의 경계가 선명함.
- 멕시코 남부는 원주민 농민들이, 아르헨티나 북부는 소수의 원주민 농민과 혼혈 농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며 브라질 동북부는 흑인과 혼혈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 지역 인구의 다수가 빈민에 속함. 이들 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도시빈민계층을 형성하고 도심 취약 지구나 도시 변두리 등지에 대규모 빈민가에서 거주하는데 브라질의 빈민밀집지역인 ‘파벨라(favela)’는 잘 알려져 있음.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지리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임.

○ 교육

-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교육이수 연수는 평균 5.2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임.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 구조가 고착화되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지속되어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정책에서 교육정책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임.(국제연합개발계획, 2004)

라. 라틴아메리카 지역 통합

○ 통합

- 2004년 ‘남미국가연합(Unión de Naciones Sudamericanas)’의 출범

을 전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통합논의의 출발점은 세계경제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로 통합논의가 확대되어가고 있음.

○ 문화교류

- 지역통합 논의는 문화 분야로 확대되어 역내 문화교류협력의 강화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 문화, 언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문화국제교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브라질이 주도하여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 씩 개최되는 세계문화포럼(Fórum Cultural Mundial)과 스페인이 주도하여 2004년부터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문화포럼(Fórum Universal de las Culturas) 등 국제적인 문화회의가 라틴아메리카와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음.

마. 문화정책에 미친 영향

1) 정치 변화의 영향

- 민주화 운동의 진전은 정치적 권리가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권 전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표현·창작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법률과 관행은 철폐되었음.
-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부상하여 문화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문화 활동의 제반 영역에 대한 시민 참여의 권리로 구체화하였고 문화행정, 문화 생산·유통·향유의 전 과정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발전하였음.

2)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

- 문화를 통한 빈곤탈출
 - 브라질과 멕시코의 농촌 및 도시 빈민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통 공예품 장인 양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빈곤탈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빈민들을 문화경제에 참가시켜 사회에 통합시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

○ 문화산업

-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세계문화시장의 5%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문화·통신재화소득의 세계시장 점유율 통계에 의하면 미국 55%, 유럽 연합 25%, 일본과 아시아 25%, 라틴아메리카 5%를 기록하고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네스포르 가르시아 깐끌리니, 2002)
-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미국문화상품이 대거 유입되거나 외국문화자본이 대거 진출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기업이 인수·합병되거나 몰락하는 등의 위기를 겪어왔으므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문화다양성

- 세계화 현상은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화시켜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고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고 자국 의회가 이를 비준을 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원리가 국제무역협정의 준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3) 사회정책 변화의 영향

○ 문화적 계층 통합

- 빈민의 문화경제 참여는 물론이고 빈민 개인과 빈민 공동체에 대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경제적 하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루는 각 계층에 구체적인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원주민, 흑인 등 인종적 소수자의 문화적 특성과 삶의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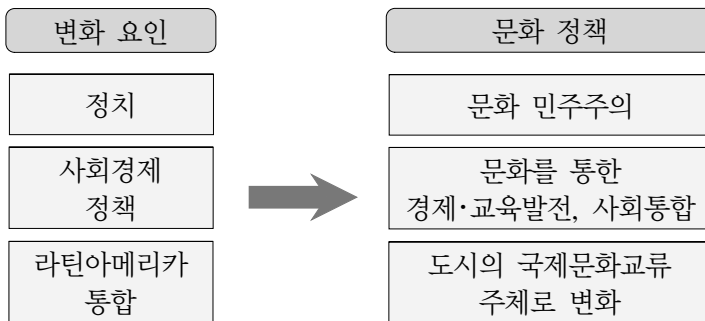
○ 문화를 통한 교육발전

- 문화를 통한 교육 발전 전략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국가교육제도 내에서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것 둘째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감성적·문화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셋째 예술가 양성 전문 교육기관을 혁신하고 문화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국가 교육 제도 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 교육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동의 60%가 빈민이라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멕시코의 과나화또에서는 ‘초등학교 순회 예술교육’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음악가들이 문화적으로 낙후한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해 소규모 콘서트를 열기도 하며 브라질 살바도르 시에서는 130명의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벌여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도 했음. (살바도르시청, 2004)
- 멕시코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총국은 2001~2006년 동안 전국적으로 2만 명의 문화 활동가(promotores y gestores culturales)를 양성하여 거주지역에서 활발히 문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문화의 집(casa de cultura)’과 같은 문화 공간의 문화기획자로 일하거나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음. (국가문화예술위원회, 2006) 또한 브라질의 ‘문화지점’ 사업은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20만개의 문화동아리들을 활성화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들 문화동아리들이 자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학술적 지원도 펼치고 있음. 이처럼 각국은 시민 개인과 시민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인력 양성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브라질 연방문화부, 2007)
- 각국은 문화와 교육 부문이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문화기관과 국가교육기관의 상호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국가교육제도와 동일한 위상의 ‘국가문화제도’를 구축하여 국가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성적·문화적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4) 지역 통합운동의 영향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통합 논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국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 브라질의 국제문화교류는 지역적으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소속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아프리카와의 문화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또한 세계적으로 이른바 ‘남-남 연대’(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 간의 국제연대라는 브라질 좌파정당 노동자당의 외교 전략)라는 외교 전략에 바탕을 두고 개발도상국간의 상호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들이 개최하는 국제 축제 및 국제문화회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 도시네트워크(Mercociudades)’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연계망이 등장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이 국제 축제와 국제 문화 행사를 활발하게 펼쳐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현상이 보편화하고 있음.



[그림 2] 환경변화가 문화 정책에 미친 영향

2. 라틴아메리카 국가문화정책의 변화

가. 문화 개념의 변화

1) 문화의 정의

- 라틴아메리카 주요 3국은 유네스코가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제안해온 문화에 대한 광의의 관점을 수용하여 각국 현실에 맞추어 구체화하였고 이를 국가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음.
- 멕시코는 1978년 ‘민속문화국’을 창설하면서 문화재와 예술이 아닌 ‘제3의 영역’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원주민 문화, 농민 문화, 도시 노동자 문화 등을 ‘살아 있는 문화’라고 칭하여 문화 개념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아르헨티나는 <2005년 연방문화원 연례보고서>에서 문화를 ‘문학과 예술’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형성, 재생산, 변형을 위해 사회가 환경과 맺는 일상적 관계의 다양한 형태 즉 지식, 의례 신념, 가치, 규범, 관습 등”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음.
-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3차원적 문화개념’은 문화를 문화적·정치적·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체계화한 것으로서 ‘문화에 대한 종합적 접근법’이라 칭할 만함.
 -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접근법은 문화는 미학적 상징표현물에서 인류학적 상징표현물까지 포괄하며, 문화는 시민적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또한 문화는 ‘문화경제’라는 독자적인 경제영역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의식임.

2) 문화의 역할

- 라틴아메리카 3국은 문화에 대한 광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문화는 고용·소득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문화는 고유의 시민의 보편적 권리(기본권)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는 시민들의 창의성을 길러내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문화는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문화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였음.

- 문화가 갖는 고유한 역할인 문화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을 한다고 것을 인정하였음.

나. 문화 정책의 변화

1) 문화정책의 전제

-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정부가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1원칙은 국가가 ‘문화적 시민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표현과 창작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임.
- 멕시코는 <국가문화계획 2001~2006>에서 문화계획 수립의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제1원칙으로 제시하였고 브라질의 연방문화부 차관 주까 페레이라는 “국가는 문화적 흐름에 개입해서 문화를 규정하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모든 문화적 흐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였음.

2) 문화정책의 특징

- 국가개입주의를 통한 문화적 시민권의 침해가 빈번했던 포퓰리즘과 독재정권 시대, 국가 개입의 축소를 통해 문화시장과 문화산업의 창출에만 집중하여 문화의 공적이고 사회적 역할이 현저히 파괴되었던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한 국가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음.
- 문화를 광의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각 국 정부는 문화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민주적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문화정책 추진 전략

- 각 국의 문화담당국가기관은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의제를 국가 의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먼저 연방정부의 문화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산을 증액하고 문화정책을 체계화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멕시코 연방정부는 88년 이래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국가전체의 문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문화총회’라는 회의를 정례화하였으며 브라질은 차제에 국가교육제도와 동일한 위상의 국가문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하였음.
- 또한 문화기관의 행정 혁신을 통해 문화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제도화하여 문화정책을 국가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 문화행정의 변화

- 문화국가기관은 문화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 시민이 문화행정의 대상에서 주체로 성장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문화는 문화부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음.
- 연방주의 원칙과 지방분권화 원칙에 따라 지역정부의 고유한 자율성을 회복하여 연방정부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화행정을 펼치며 분권화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라. 주요 의제

1) 다문화주의

-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자국 문화의 성격

을 다문화주의로 파악하였으며 국가문화정책의 핵심 기조로서 문화다양성의 원리를 채택하였음.

- 라틴아메리카 각 국은 자국의 문화 성격을 문화 다양성 원리를 통해 재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주민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대표국가 멕시코는 원주민 문화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이고 나아가 멕시코 문화에 대한 아프리카 흑인 문화의 영향까지 연구하고 있으며 백인 라틴아메리카 대표국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소수 원주민 문화와 다종다양한 이민공동체들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고 흑인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중주국 브라질에서는 흑인 문화에 대한 진흥뿐만 아니라 토착 원주민 문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민족문화의 본질적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다양한 인종적 소수자들(원주민, 흑인 등)의 사회운동의 성과이며 민주화운동의 성취이기도 함.
- 80~90년대의 급격한 대외개방과 세계화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서는 자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었고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였음.
- 다문화주의의 2가지 쟁점
 - 첫째, 다양한 문화들 간의 위계와 차별을 극복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즉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문화적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음.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 차별은 계층·인종·지역 차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지역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층, 인종, 지역 차별은 심각한 데 반해 문화적 차별은 비교적 약하다는 것임. 가령 브라질에서 흑인 문화는 사회전체가 향유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멕시코에서도 원주민 문화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으로 간주되고 있음.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같은 문화적 합의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음.
 - 둘째, 다문화주의를 이루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들이 저마다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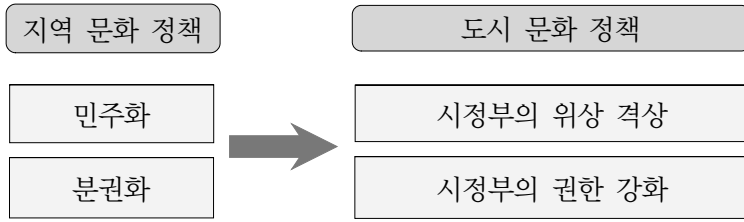
문화 전통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데 노력하게 될 경우에 공동체에 속한 시민 개인의 문화 선택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하게 됨.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원리는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기성 전통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문화 요소들의 도입을 통한 문화전통의 변화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현재 라틴아메리카 각 국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의 활발한 교류, 타 문화권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으로 시민의 문화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아마티야 센, 2002)

2) 문화민주주의

- 라틴아메리카 3국은 문화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여 문화향유의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행정의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문화행정의 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민문화공동체(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생산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을 다양한 수준의 문화 인력으로 양성하여 문화생산과 향유를 잇는 매개 부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마. 지역 문화 정책의 변화

- 민주화
 -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연방정부와 시정부간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 관계가 수평적이고 민주적 관계로 변화했으며 시정부와 연방·지방 정부와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바뀌었음.
- 분권화
 - 주 정부,시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시 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음.



[그림 3] 지역 문화 정책의 변화가 도시 문화 정책에 미친 영향

3. 라틴아메리카 도시문화정책의 형성

1) 정치적 변화의 영향

- 도시문화정책 형성의 배경이 되는 정치세력의 교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현재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연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중도 좌파 정치 세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는 우파 정부와 대결하는 강력한 야당세력으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낙후 지역과 대도시 빈민지구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하층의 지지를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주정부, 시·군·구 정부)를 운영해왔음.
 - 즉 분권화와 민주화는 연방정부의 교체에서 일방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해온 것이기도 함.
- 도시문화정책의 형성과정과 연방정부 문화정책의 형성과정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았음.
 -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아르헨티나 국가 문화정책의 수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브라질의 연립정부를 주도하는 노동자당(PT)은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을 수립하였음.
 - 라틴아메리카 도시문화정책은 국가 문화정책의 변화로부터 일방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국가문화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시정부와 주정부 등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2) 도시문화정책의 발전

- 민주화와 분권화의 흐름은 라틴아메리카의 각 도시들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권한을 강화시켜 도시들이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문화정책 집행의 독립적 주체로 발전하는 데 공헌하였음.
 - 도시들은 국가 내 문화교류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문화교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펼치는 주체로 성장하였음.
- 라틴아메리카 각 도시들은 문화를 도시발전의 핵심 의제로 삼았고 문화계획을 도시발전계획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삼기 시작하였음.
 - 각 도시들은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먼저 중장기적 문화비전을 제시하여 아르헨티나 문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살바도르와 멕시코의 과나화또도 문화계획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시들은 도시문화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를 수용하고 구체화하고 있으며 도시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주정부와 연방정부 등 상급 정부들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음.

3) 도시 문화 정책의 주요 의제

- 도시문화정책의 의제는 국가문화정책의 의제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
 - 도시문화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문화정책의 의제가 형성되었고 역으로 국가문화정책의 체계화와 문화행정의 혁신은 도시문화정책의 의제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원리는 도시 외부로 향해서는 도시문화전통의 보존을 위해 도시 문화의 고유성을 강조하게 되고 도시 내부를 향해서는 도시

- 내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
- 도시 내의 문화·인종·계층적 하위집단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차별을 폐지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행위로 이 같은 일은 사회적(인종적, 계층적)차별을 철폐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는 바로 이 같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자기 도시의 고유한 특질로서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 도시들은 문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낯선 문화권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문화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 도시들은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활용정책을 펼치고 있음. 살바도르 시의 ‘신물의 집’ 사업이 잘 보여 주듯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현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고고학 유적지 복원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고 유적지 관광이 지역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문화유산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 정책을 병행하여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음.
 - 도시 내에서 문화 행정, 문화 생산·유통·향유의 제 부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 문화민주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은 라틴아메리카 도시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임.
 - 도시 예술가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메세나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도 도시 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19세기 말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도시 곳곳에는 빈민가들이 들어서게 되었음. 브라질 대도시 마다 향구 도시의 구릉 마다 빈민가 ‘파벨라’가 들어섰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시 남부에도 가난한 이민노동자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음.

- 도시 내의 공간적 구획은 계층과 인종과 문화적 소수자를 나누는 구획의 의미를 띄게 되었고 각 도시들은 이같은 사회적 균열을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2절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

1.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현실

가. 라틴아메리카 도시 발전의 역사

-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15세기~18세기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너 온 스페인 제국과 포르투갈 제국의 식민지들에 의해 형성되었음. 식민지들은 도시계획자들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로마 도시의 격자 구조를 모델로 삼아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특징인데 도시 중심에는 사각의 광장을 세우고 광장 주변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면서 도시를 확장했음.
- 멕시코시티와 같이 원주민 문명의 중심지에서는 고대 도시를 허물고 식민지 행정도시를 새롭게 건설하였고, 광산지대의 험준한 계곡과 산비탈에는 멕시코의 과나화토와 같은 광산도시를 건설하였고, 대서양 연안의 해상무역의 거점에는 방어요새를 세우고 브라질의 살바도르와 같은 항구도시를 세워 식민지 기간 내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대거 유입하였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리오 플라타 강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식민지 행정 도시로 이곳은 19세기 후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부유럽과 중부유럽의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음.
-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의 운명은 19세기 후반 근대화가 본격화하면서 뚜렷이 갈렸는데 노예제에 기반을 둔 농업과 식민지 시대를 풍미했던 광업의 쇠퇴는 식민지 시대에 크게 부흥했던 도시들의 몰락을 초래했음. 그 시절부터 광산도시 과나화토 시와 노예 수입 항구 도시 살바도

르 시는 쇠락하기 시작하였고 근대적인 산업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 198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각 국은 심각한 외채위기를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워싱턴 합의’라고 불리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수용하게 되었고 급격한 사회경제정책의 변화를 겪게 되었음.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구조조정정책으로 세계화와 개방의 길로 나섰지만 기대했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도 못했고 분배 사정도 더욱 악화시켰음.(국제연합개발계획, 2004)
 - 1994년 멕시코, 1998년 브라질, 2001년 아르헨티나 등 신자유주의 시대 각 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는 데 이 같은 국가 위기는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 경제적 이중구조(양극화)를 더욱 강화시켜왔음.
 - 사회경제적 이중구조의 심화는 빈곤층과 청년 실업층의 증가를 낳았고 이 같은 상황은 국가 사법기관과 경찰기구들의 부패와 결합하여 라틴아메리카 도시 내의 치안 악화로 이어졌음. 라틴아메리카 대도시들에 마약과 납치 등의 범죄가 급증하여 사회공동체의 위기가 심화하였음.

나. 라틴아메리카 도시 문화의 특징

-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도시민의 문화적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
 - 이베리아 반도의 양 제국이 통치하던 식민지 시대(16~19세기 초)도시들은 주로 백인들의 거주지였고 식민지 시대 주력 산업이었던 농업과 광업 지대에 원주민, 흑인 등 인구의 다수가 거주하였으니 문화적으로도 확연하게 구분되어 도시 백인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져온 유럽문화의 라틴아메리카 버전을 고수하였고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원주민과 흑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이베리아 식민자의 문화가 혼용된 ‘혼혈문화’를 탄생시켰음.

- 19세기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이룩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이 시기에 혼혈인(백인과 원주민 혼혈 메스티소, 흑·백 혼혈 물라또)들과 흑인, 원주민들, 남부·중부 유럽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도시로 이주하여 노동빈민층을 이루고 도시빈민지구에 정착하였음. 문화적으로 볼 때 지배층인 끄리오요 계층(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식민자들의 후예)거주지역은 프랑스·영국 등의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문화취향을 받아들인 데 반해 도시빈민지구는 기원이 다른 여러 문화가 섞인 독특한 라틴아메리카적 도시대중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음. 흑인 도시 거주자들의 삼바와 가난한 이민노동자들의 문화 탱고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적 도시대중문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형성되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대중문화는 초기에는 지배층에 의해 식민지 시대처럼 탄압받거나 금지되기도 하였고 20세기 중엽의 포퓰리즘 시대에는 찬양받거나 미화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부침을 겪었고 독재정권 시대에는 민주적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저항문화의 원천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로 성장하였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이민노동자의 도시 문화 탱고(기성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의 유럽문화의 결합), 브라질의 살바도르와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발흥한 흑인 도시대중문화 삼바(아프리카 문화와 포르투갈 문화의 결합), 멕시코의 벽화운동(원주민 문화와 유럽문화의 결합) 등은 라틴아메리카문화의 특징인 ‘잡종문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임.
- 라틴아메리카 도시 문화의 ‘잡종성’은 세계화와 지역화 등을 통한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

다. 라틴아메리카 문화 도시의 제약 조건

1) 국가 차원의 제약과 대응

-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어왔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든 공공부문(연방·지방정부, 시·군·구청)의 문화책임자는 물론이고 민간부문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중·장기적 국가문화정책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예산이 축소되고 문화 예산도 격감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서 문화부문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중도 좌파 정부의 집권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호전되면서 국가재정도 늘어나고 있어 문화 부문 예산도 꾸준히 상승해왔음.
-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국가문화담당기관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행정부 내에서 위상이 낮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일정한 제약이 되어왔음.
 - 국가문화담당기관의 혁신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집행력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정부기관와의 전략적 협력을 제도화하여 문화계획이 국가발전계획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문화기관의 정부 내의 위상을 격상하고자 함.

2) 도시 차원의 제약과 대응

- 도시 문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도시 중·장기문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 문화 예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메세나를 통한 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문화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문화적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문화전략을 추진

하고 있음.

- 시 문화담당기관의 위상을 격상하기 위해 문화담당기구의 행정을 혁신하고 문화정책을 체계화하며 관계기관과의 제도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문화기관의 위상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시 내의 문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문화인력 양성사업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도시에 위치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공공부문의 관료제는 공공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낳게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생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극복해왔음.
- 라틴아메리카 대도시의 치안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멕시코와 브라질의 도시들은 마약, 납치 등의 범죄에 시달리고 있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론 -‘자생적 문화도시’

가.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의 특징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도시들은 도시가 맞은 여러 위기들을 문화를 통해 타개해가면서 자생적으로 탄생하였음.
 - 1950년대 광산도시 멕시코의 과나화또는 도시몰락의 위기를 맞았으나 도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은 세르반테스 막간극 상연 행사를 도시의 새로운 문화전통으로 만들어내면서 도시의 위기를 극복해낼 단초를 마련하였음.
 - 브라질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한 대도시로 전락한 살바도르 시는 60년대 비판적인 예술가들이 주도한 ‘아프로브라질 문화운동’을 통해 문화적 활력을 얻게 되었음.
 - 19세기말~20세기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이민노동자

들은 세계적인 퓨전문화 탱고를 탄생시켰고 2001년 국가위기 시기에
 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문화적 노력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붕괴위기를
 극복하였음.

-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공공부문의 적절한 지원은 도시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고 문화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였음.
 - 과나화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였던 세르반테스 막간극 행사는 시청과 주정부가 지원을 받아 지역축제로 성장하였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면서 국제적인 공연예술축제로 발전하였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최근 다양한 탱고 축제를 개최하여 도시가 보유하고 있던 ‘탱고의 발상지’라는 문화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살바도르 시청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살바도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프로브라질문화의 요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은 창의적인 문화행정을 통해 여러 제약을 극복해왔고 도시생활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시정부는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문화행정을 통해 도시 전체를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도시가 보유한 경제 자원의 부족과 시 문화예산의 제약을 창의적인 문화행정으로 극복해왔음. 생활공간(광장, 공원, 거리)의 문화공간화, 비문화공간(스포츠클럽, 공공건물)의 문화공간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 등의 참신한 문화실험을 전개해왔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은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시 문화정책은 개발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음. 도시 내부의 계층·인종 간의 사회경제적 삶의 격차가 심각하고 이를 극복하여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고 이

를 위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

- ‘문화적 관광’ 정책도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지역유적지개발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안내원 교육을 받고 유적지의 관광안내원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나.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의 위기를 여러 주체들의 협력에 의해 극복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문화도시의 초석을 놓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고 공공기관들이 적절하게 지원하여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문화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였고 문화담당기관들의 ‘창의적인 문화행정’과 ‘종합적인 문화정책’이 문화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 개요’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음.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 개요

가. 시 정부의 역할

- 문화 행정의 주체로 주·연방정부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도시가 독자적 문화정책 수립·집행의 주체이자 국가문화정책 수립과정에 참가하는 일원)
- 국내 문화 교류의 주체이자 국제 문화 교류의 주체

나. 문화·문화정책의 역할

- 문화·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종합적 접근
(문화적·정치적·경제적·교육적 역할)

- 문화·문화정책은 도시발전전략의 핵심축

다. 문화 도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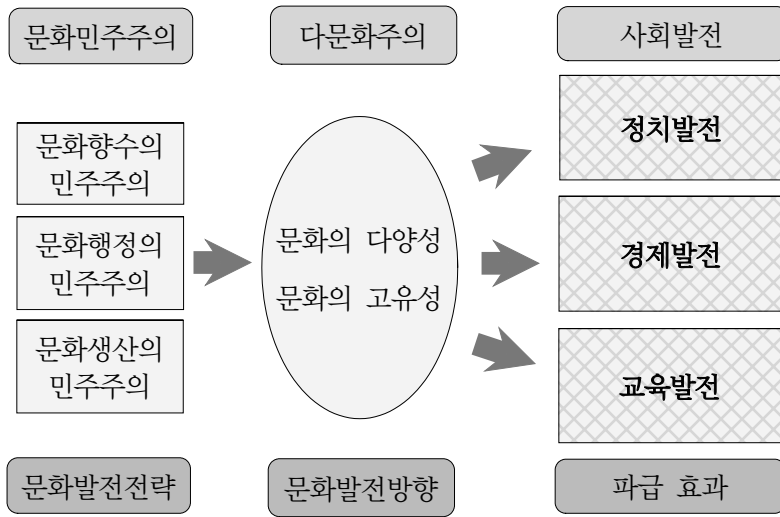
- 자생적 문화 다양성의 존중
- 공공기관의 적절한 협력
- 창의적 문화시정
- 종합적 문화정책

라. 문화 정책의 핵심 의제

- 1) 문화발전 전략-문화 민주주의
 - 문화행정의 민주주의(문화 행정의 시민참여)
 - 문화향수의 민주주의(문화 재화·용역에 대한 보편적 접근)
 - 문화생산·유통의 민주주의(시민 개인·공동체의 문화생산 활동 진흥, 문화 활동에 참가할 개인·공동체의 육성)
- 2) 문화발전방향 - '역동적 다문화주의'(현재의 문화 다양성의 존중을 넘어 문화 다양성을 계속 확대해가는 것)
 - 문화 다양성(도시 문화정체성의 확대)
 - 문화 고유성(도시 문화정체성의 강화)
- 3) 문화적 사회통합으로 도시발전
 - 문화를 통한 정치발전(민주주의 심화)
 -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
 - 문화를 통한 교육발전

라. 전략의 궁극적 목표

- 시민의 삶과 문화가 혼연일체를 이루는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즉 문화=생활 전략



[그림 4] 라틴아메리카 문화 도시 전략

제 5 장 라틴아메리카에서 본 우리
문화 도시 조성 전략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는 ‘자생적 문화 도시’로서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도시들이 맞게 된 위기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적으로 극복해가면서 형성되었고 공공문화기관들은 시민들의 문화적 노력에 적절하게 협력하여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대하였음.
- 한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자생적 문화도시’의 경험은 시민 문화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원칙임을 시사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은 민주화와 분권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의 정책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연방·주정부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도시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 및 지역과의 적극적인 문화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음. 이것은 문화도시의 형성과 발전에서 시정부의 역할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은 자생적 문화도시 형성의 주체인 시민들이 문화행정의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개인·공동체들이 문화생산·유통·향유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한국의 문화도시 조성과정에서 문화행정의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생산·유통·향유의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의 문화 발전 방향으로서 ‘역동적 다문화주의’는 현재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도 문화다양성을 계속 확대해가는 것을 의미함. 이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즉 현재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문화 정체성을 확대하는 노력(새로운 문화적 요소로 문화다양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이 전통 문화의 현대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 도 낮설고 새로운 문화(특히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임. 이런 노력은 한국의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도시 문화의 다양한 전통을 복원하여 현대화하는 것과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도시 문화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들은 ‘문화적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였음. 문화의 문화적·정치적·경제적·교육적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자는 관점으로 사회경제적 하층(빈민층),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인종적 소수자(흑인, 원주민 등)들이 문화경제에 참가하고 문화기본권을 누리 문화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음.
 - 반면 한국에서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전략은 문화의 경제적 역할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문화산업진흥정책으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화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의 ‘종합적 문화정책’은 도시 문화경제의 발전이 기존의 사회적 균열을 더욱 심화해서는 안 되며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어 시민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국의 도시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도시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추구하는 ‘문화=생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시민들이 문화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 생산·유통·향유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적 권리를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어가고, 시민들이 문화경제에 참가해 고용과 소득을 얻고, 문화교육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여 시민들이 적극적 주체가 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도시를 발전시켜 가는 것은 문화가 시민생활 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며 시민생활이 문화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전략의 ‘유토피아적 전망’으로서 이 대

륙의 문화도시들이 참신하고 파격적인 문화 시정을 펼칠 수 있었던
상상력과 창의력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카를로스 푸엔테스(1997),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까치

Amartya Sen(2007), □□Identidad y Violencia□□

Toby miller y George Yúdice(2002), □□Política Cultural□□

UNDP(2004),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MEXICO

Ayuntamiento de Guanajuato(2006), □□Propuestas□□

Conaculta(2000), □□Memoria 1995~2000□□

Conaculta(2001), □□Programa Nacional de Cultura 2001~2006□□

Conaculta(2003), □□Atlas de infraestructura cultural de México□□

Conaculta·Dirección General de Culturas Populares e Indígenas(2006),

□□Culturas Populares, Recuento en Siete Voces□□

Conaculta·Dirección General de Vinculación Cultural(2006), □□Una

Mirada Final 2001~2006□□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2001), □□Memoria 2001□□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2007), □□Memoria 2007□□

ARGENTINA

Ministerio de Cultura de la Ciudad de Buenos Aires(2007),

□□Informe de Gestión 2006□□

Secretaría de Cultura de la Nación(2006), □□Informe Anual 2005□□

Secretaría de Cultura de la Nación(2006), □□Declaración de Mar del Plata□□

Secretaría de Medios de Comunicación(2005), □□Sistema Nacional de

Consumos Culturales 1□□

Secretaría de Cultura del Gobierno de la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2001), □□Plan Estratégico de Cultura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

BRASIL

Fundação Gregório de Mattos(2006), □□Documento de Visão e
Planejamento 2005/2006□□

Fundação Gregório de Mattos(2007), □□2007 Agenda Cultural□□

Ministério da Cultura(2007), □□Programa Cultural para o
Desenvolvimento do Brasil□□

Prefeitura Municipal do Salvador(2004), □□Cidade Plural, Salvador da
Bahia□□

주요 인터뷰 대상자

멕시코

멕시코 국가예술위원회 문화교육국 국장 호세 안토니오 막그레고르(José Antonio Mac Gregor)

멕시코 국가예술위원회 세르반테스 국제 페스티벌 총감독 미니 까이레(Mini Caire)

과나화또 시청 문화국 국장 헤수스 안토니오 보르하(Jesús Antonio Borja)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화부 정책조정실 조정관 베라 꼬르스(Vera Kors)

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 문화부 장관 실비아 파흐레(Silvia Fajre)

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 문화부 축제 및 문화행사 국장 레네 마르셀로 그로스만(René Marcelo Grosman)

브라질

브라질 연방정부 문화부 차관 주카 페레이라(Juca Ferreira)

브라질 바이아 주 정부 문화부 차관 까를로스 빠이바(Carlos Paiva)

브라질 살바도르 시청 교육문화부 차관 끌라우지우 시우바(Claudio Silva)

ABSTRACT

A Study on the examples of Latin American cultural cities

Recently in South Korea, there is a vigorous debate over a cultural city and cultural diversity agenda,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an initiative for the formation of cultural cities in Korea. This circumstance enforced to analyze the examples of cultural cities over the world, especially European ones.

In Latin America, there are various cultural cities based on cultural diversity, which have been grown in the 'autogenerative' way. Lately the Latin American governments have adopted the cultural strategy which has encouraged to promote the cultural diversity in the c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cultural policy of three principal countries in Latin-america; Mexico, Brazil and Argentina, and for further approach to the investigation especially on a representative cultural cities of each country, which are Guanajuato of Mexico, Buenos Aires of Argentina and Salvador of Brasil.

Recently Latin-american federal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for the social inclusion and the deepening of the cultural democracy by cultural activities. Likewise, the three above -mentioned cities have tried to develop cultural strategies in the way the federal government adopted.

The main characteristic of Latin American cultural cities is 'autogenerative'. It's because of the citizen's voluntary culture activities

which made to constitute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cities, Remarkably The crises that have struck the cities was overcome by the endeavor of citizen and the governments' appropriate collaboration, those have consolidated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cities.

The efforts of the latin-american cultural cities implies many lessons to Korean cities. This lessons will help to avoid error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cultural cities with same objects, which are the social inclusion and the cultural democracy.

부 록

부록 1-멕시코의 <국가문화계획(2001~2006)>

문화계획 수립 5대 원칙

-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
- 문화적 다양성의 재확인
- 문화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 문화정책과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강화
-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균형적인 문화발전 추구

문화비전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실질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며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문화미션

“문화 발전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균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유형·무형 문화, 전통·현대 문화 등 문화 전반을 보존·전파하고, 모든 멕시코 시민에게 기회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창작, 전파 활동을 활성화한다.”

11대 기본 과제

- 사회 참여 방식의 다양화 추진

- 문화부문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문과 문화부문의 긴밀한 연계
- 문화예술 장르 전반의 다양한 관객 창출
- 책 읽는 나라 만들기.
- 문화시설 개선 및 확충.
- 문화산업 진흥.
- 전략적인 국제 문화 교류 정책의 추진.
- 문화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보의 적극적 활용.
-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메커니즘 개발.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행정의 현대화와 혁신.

문화 정책의 10대 영역

- 문화재 보존 및 연구
- 민속문화 및 원주민 문화
- 문화재, 개발, 관광
- 예술창작 진흥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 문화전파
- 독서와 도서
- 시청각매체
- 문화적 균형 발전 및 시민참여
- 국제협력

10대 영역별 종합목표 및 세부 과제

1. 문화재 보존 및 연구

종합목표

멕시코 문화적 부를 형성하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연구·보존 하고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전파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과제

- 멕시코 사회개발의 핵심 요소로 문화재 위상의 격상
- 문화재 관련 법령의 현대화
-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 보존 기술력의 향상
- 문화재 연구·보존 사업계획 추진 및 이의 발전·평가시스템 도입
- 국립인류학역사학연구원(INAH, 19세기까지의 멕시코 문화재 보존 국가기구)의 혁신 추진
- 문화적 접근권의 보장 및 소득 창출 병행 모델의 개발
- 유형예술유산의 재평가 및 복원
- 예술유산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의 작성
- 유산 등록 절차의 현대화
- 국립예술연구원(INBA, 20세기 이후 멕시코 문화재 보존 및 예술 진흥 국가기구)의 현대화
- 예술 유산의 전파 활동 강화
- 건축 기념물 유산 및 관련 유산 총람 작성
- 사회 참여 및 의견개진의 신매커니즘의 개발
- 연방 문화재 정보 조회 및 열람 공간의 확충
- 문화재보존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강화
- 고고학적·역사적·예술적 기념물 및 유적지의 복원·보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조성

2. 민속문화 및 원주민 문화

종합 목표

멕시코 민족 정체성의 심원을 이루는 민속 문화와 원주민 문화의 표현물을 존중·평가하여 진흥한다.

세부과제

- 멕시코 민속 문화·원주민 문화 진흥 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 활동의 강화
- 민속문화 전파 종합계획 수립
- 민속문화·원주민문화 발전 제안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의 설치
- 지방문화 지원프로그램(PACMYC,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방문화진흥사업의 강화
- 지방공동체의 공예품·문화 생산의 장려 및 상품화 지원
- 전통공예디자인 순회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공예품 생산력 향상
- 주 민속문화 발전기금의 창설
- 원주민언어 진흥책의 도입
- 재외 멕시코 동포들과 문화적 유대 강화 및 재외 원주민 동포와 멕시코 원주민공동체의 결속 강화
- 국립민속문화박물관(MNCP,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국립박물관)문화 행사 활성화
- 원주민 지역의 마을박물관의 역할 강화

3. 문화유산, 개발, 관광

종합목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관광을 문화재 보존·진흥과 결합시키고, 문화적 창의성에 바탕을 둔 생산 활동과 연계시킨다.

세부과제

- 문화재와 관광 부문의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및 협력틀 구축
- 문화재, 개발, 관광을 조정할 기관 설치
- 문화자원분포지도 작성 및 분권화한 사업계획 추진 지원
- 관련 분야 연구 지원금 지원
- 문화유산을 문화예술 생산물의 디자인에 활용한 방안 마련

- 테마별 관광 일정과 테마별 관광지도의 작성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관광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틀의 공고화
- 국제 개발지원 기구들과의 협력강화, 국가 간 프로젝트 및 민간 제안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참여
- 문화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흥
- 문화관광 정보화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 문화관광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의 개발
- 관광지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입는 사업계획 수립

4. 예술창작 진흥

종합목표

국가, 시민사회, 문화계의 공동 노력 및 공동자원 조성으로 질 높은 문화 예술작품의 창조를 위해 지원하여 국가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세부과제

- 국가문화예술기금(FONCA)프로그램의 예술적 성과를 측정할 신평가 제도의 개발
- 질 높은 문화예술사업을 제안하는 신진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고유 예술언어 창조, 예술적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의 신장, 관객 창출 등을 위한 중장기사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
- 국내 예술 프로젝트 및 국제 프로젝트의 결합 강화
- 문화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 경제 활동 집단 지원 확대
- 국가문화예술기금(FONCA)의 민주적 운영 정착
- 예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이와 관련한 국제 협약의 추진
- 국제 문화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예술창작 진흥
- 국가문화예술기금(FONCA) 심사위원회에 대한 지방예술가 참여 확대, 지방 예술가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지방분권강화로 지방 예술가 노동시장의 활성화
- 국가문화예술기금(FONCA)의 기금조성출처의 다변화를 위한 법적·행

정적 기반의 구축

-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신용대출 프로그램 도입
- 지원 사각 지대에 대한 신규지원프로그램 도입
- 국립예술연구원(INBA)을 통한 작품창작위탁프로그램의 도입
- 국립예술연구원(INBA)의 공모제도 및 포상 제도 개선
- 예술가들의 국제 진출의 활성화

5.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추진목표

문화예술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세부과제

예술교육과 조사연구

- 예술·문화재 교육에서 교육부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공동 협력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의 도입
- 예술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프로그램의 도입. 신기술의 도입으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질적 향상
- 교육 혁신 추진 기관들과 협력 강화
- 지방 도시의 예술교육 활성화, 교육제도의 현대화 및 예술교육공간의 확충
- 초등교육과 예술교육의 연계를 위해 공립학교들과의 공동협력 강화
- 예술교육연구단체의 연구를 학교 교과과정에 적용
- 지방예술학교의 설치
- 교육부와 공동으로 예술공공채널 23번(Edusat) 개설
- 국립예술학교(CENART)의 대학원 과정 개설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의 활성화
- 문화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지방예술가에게 국립예술학교(CENART) 멀티미디어센터에 입주 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추진
- 예술교육정보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국립예술학교(CENART)내에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센터를 신설할 것
- 사회적 취약계층(특히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향유 프로그램의 설계
- 예술관객의 창출·확대 프로그램의 개발
- 국립예술학교(CENART)의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및 법인화 추진
- 예술교육기관 네트워크의 인터넷 사이트 구축
- 국가교육제도와 공동협력으로 국가예술영재발굴프로그램의 설계 및 추진
- 국가음악진흥제도(SNFM)의 활성화로 지방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단의 창설 지원
- 국립소년소녀오케스트라 및 국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설
- 국가음악진흥제도(SNFM)에 속하는 국립도서관의 개설
- 청년오페라단의 창단

문화재 연구·보존·진흥을 위한 교육

- 국립인류학역사학연구원(INAH) 소속 학교의 교과과정 개편
- 국립인류학역사학연구원 소속 학교의 교과과정 현대화(현장화)
- 다양한 수준의 학술행사의 활성화
- 교육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 국내외 교육기관들과 협력 및 교류의 활성화
- 교육시설의 확충

6. 문화 전파

종합목표

문화재(현대 문화재로서 예술포함) 진흥·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

회의 모든 계층이 예술적 표현물 전반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새로운 관객의 창출과 국가문화생활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힌다.

추진 과제

- 예술 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예술의 동시대성 및 예술성의 원칙 재확인
- 국립예술연구원(INBA 예술진흥기구)의 국가적 역할 강화
- 국제적인 교류·진출의 활성화
- 국립예술연구원(INBA)의 조직현대화 추진
- 예술 전파 재원조성의 다변화
- 예술 전파의 시민참여 확대 및 강화
- 예술 유산 전파·확대의 노력
- 박물관 및 고고학 유적지 시민부대시설 개선
- 지방 박물관 및 공동체박물관의 활성화
- 연구 성과 전파, 문화유산 연구 및 전파에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 해저고고학 유물, 산업고고학 유물, 고생물학 유물, 선사시대 유물의 홍보 강화
- 박물관, 고고학 유적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개선
- 다양성과 예술성의 잣대로 예술창작·전파를 예술교육·연구와 적극적으로 결합시킬 것
- 국립예술학교(CENART)의 교육대상확대를 위해 대중매체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 관객의 창출·사회활동·참여 프로그램 제정
- 국립예술학교(CENART) 공연장 운영 및 예산 신전략 수립
- 세르반테스국제축제(FIC)의 지속성, 역할 확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축제 조직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을 모델사업화할 것
- 헬렌문화센터(CCH)를 연극문화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 것
- 지방문화재의 재평가·진흥 노력, 북서부 및 남부 지역의 문화 창조·전

파 중심지로서 띠후아나 예술원(CCT), 오아하까 산토 도밍고 예술원(CCSDO)의 역할 제고

- 영상센터를 통한 사진예술문화 형성
- 산 일테폰소 옛 학교(멕시코 시티 중심가에 설립된 옛신학교)의 시각 예술 전파의 중심지로 만들 것.
- 국립문화회관(Auditorio Nacional)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 및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접근권 제고

7. 독서와 도서

종합목표

학습 및 정보, 개인·사회 발전의 최상의 수단인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들의 독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수준 높은 도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질 높은 독서 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세부과제

- ‘책 읽는 나라를 위하여(Hacia Un País de Lectores)’국가프로그램의 추진. 도서·독서 문화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동협력,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내에 도서·독서문화 진흥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업무를 조정할 것
- 멕시코 출판시장 기반 구축 및 시장 규모 확대 노력
- 멕시코 출판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공공 부문의 체계적인 협력
- 대규모 유통을 위한 엮가 도서시리즈의 편집
- 전국적인 독서살롱(소규모 독서시설)의 확충을 위해 살롱 간사 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예우 강화
- 지방 독서문화진흥 특별기금의 조성
- 도서박람회 및 도서 축제 확대
- 대중매체 및 신기술을 통한 독서 및 독서문화 진흥

- 전국공공도서관네트워크의 강화 및 도서관 시설의 균형적 확충(도서관 서비스 수준의 균형 발전도 중요함)
- 지방 시·군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조성
- 공공도서관의 소장해야 할 문헌목록을 작성할 것
- 신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현대화
- 도서관 인력 교육 강화
-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 활성화
- 도서관 개선을 위한 시민협력 확대 및 공동체도서관 서비스의 향상
- 멕시코국립도서관의 현대화 및 국가도서관센터로서 위상 강화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서점네트워크(EDUCAL)의 강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공서점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문화 서적의 유통망 현대화 및 유통 지원

8. 시청각 매체

종합목표

문화지식 및 문화 향유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세계 문화의 우수한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시청각 콘텐츠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한다.

세부과제

- 영화 생산과 유통, 상영과 전파 등 영화산업 제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
-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해 장편영화 공동제작 편수를 늘릴 것
- 전국영화상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영화문화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멕시코영화연구원(IMCINE, 국가영화지원기구)의 수혜영화들의 상품화 지원
- 추루부스꼬 스튜디오(영화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스튜디오)를 영화산업의 신진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익성 개선

노력 강화

- 영화교육센터(CCC, 멕시코 국립영화학교)의 교육수준 제고
- 국립시네마테크의 영화 유산 보존·연구·전파 활동의 현대화
- 텔레비전용 문화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수준 높은 해외 시청각 콘텐츠의 유통 지원
-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멕시코 예술가와 외국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신기술에 기반한 신진 영상인력 양성
- 라디오를 통한 문화전파활동의 활성화, 멕시코 소리 유산의 가치확산

9. 문화적 균형발전과 시민참여

종합목표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시·군·구청)와 사회가 공동 협력하고, 문화 진흥·전파 활동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세부과제

- 주 문화예술기금의 운영 효율화 제고
- 지방 문화예술기금의 확대 강화
- 시·군(Municipio)문화기금 창설
- 시·군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자문위원회의 설치
- 관객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정
- 지방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
- 지방 페스티벌의 전국네트워크 창설
- 아동문화특별기금의 활성화 및 아동문화활동 강화
- 주 청소년 문화발전특별기금 조성
- 문화인력 및 문화프로모터(문화활동가) 교육제도 강화
- 신규 지방문화지원프로그램 개설
- 문화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지방 대학·고등교육기관들과의 협력틀 구축

- 지방정부의 문화 시설의 개선 및 확충 지원
- 문화정보제도의 강화

10. 국제 협력

종합목표

멕시코 문화 표현물의 국제적인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류대상 문화도 다양화한다.

세부과제

- 연방·지방정부의 모든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문화협력전략의 도출
- 국가발전에 기여할 문화협정 및 문화사업 추진
- 양국간 혹은 다자간 문화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제문화협력 활성화
-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국가 문화기반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국제문화협력전략과 방법을 재검토해서 재정과 인력을 재배치할 것
- 국제기구의 문화 활동에 대한 멕시코의 참여 강화
- 문화 다양성의 국가로 멕시코 대외이미지 제고
- 효과적인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 다양성 강화
- 문화지표작성을 위해 공동연구의 추진, 문화정책의 비교연구 활성화
- 지방 예술가와 문화단체, 문화 인력이 국제문화교류에 적극적인 참여 제고
- 지방 문화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외국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들의 참여 활성화
- 외국 사례를 참고해 멕시코문화산업 및 국제시장내의 위치를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부의 관계부처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 멕시코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의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

문화계획 평가기준

1. 전통적 평가 기준

- 목표 달성의 효과성,
- 자원 활용의 효율성,
- 자원 분배 및 자원 집행의 투명성

2. 4대 신 평가기준

-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이 제공되었는지
- 시민들에게 편익이 골고루 분배되었는지
- 추진일정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 정책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3. 문화행정평가시스템 도입

- 전통적 평가기준과 신 평가기준에 기반한 문화행정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문화지표시스템, 문화정보시스템, 문화행정감사시스템 등과 결합시켜 운영할 예정임.

(주-멕시코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2001년 멕시코의 <문화계획 2001~2006>의 전문 문서와 요약본(‘집행계획’) 총 두 종을 발표했음. 위의 부록은 ‘집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발췌·번역한 것임)

부 록 2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문화전략계획>

- ‘창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전략계획> 작성의 방법론 3원칙

- 시 문화부의 정치적 리더쉽
- 문화계 인사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 전략계획 개발과 도출의 기술적 엄격성

미래 환경 분석

주변부 국가의 문화 환경 전망

- 주변부 국가 국가들의 문화 생산, 문화유산 재평가 및 보호에 투여할 자원의 심각한 제약
- 강력한 문화 상품화 경향
- 대중언론매체의 독점화로 인해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강요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경향
- 최첨단 기술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
- 주변부 국가에서 중심부 국가로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이민

“거주할 만한” 도시의 조건

- 개인과 가족의 기본 욕구 즉 고용, 주택, 문화, 교육, 건강, 치안 등을 만족시키는 도시
- 질 높은 환경 즉 깨끗한 자연 환경, 안전한 사회 환경을 유지하는 도시
- 시민 일일 이동거리를 줄이고 지리적 이동성을 높이고 거리와 광장을

사회적 공간으로 회복하는 도시

-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높은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
-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도시
-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적·참여적 신경 제모델과 전통적인 개발모델을 혼합하여 지역(남미지역)경제와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 도시

현재 도시 문화 정책

대전제-도시발전은 문화발전과 긴밀한 관계

문화정책의 세 가지 축 :

- 공공장소를 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예술의 다양화 증진
- 유·무형 문화유산의 재평가와 복원

문화 예산 비중(2000년 통계 비교)

- 바르셀로나(Barcelona) 4. 70%
-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4. 17%
- 상파울루(São Paulo) 1.29%
- 마드리드(Madrid) 1.18%
- 멕시코시티(México D.F.) 0.56%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문화 소비

- 음악(라이브연주) 1주 1회 55.5%, 1개월 1회 41.7%,
- 영화 1주 1회 72.8%, 1개월 1회 26.3%
- 연극 1주 1회 35.0%, 1개월 1회 58.9%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소비실태 및 문화매체 소유 현황 조사](2000)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 현황 진단 : 결론

- 기회, 위협, 강점, 약점, 분석

기회

으뜸 요소

- 세계적 지역 블럭화 강화 경향
 -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 증대
- 세계적 행정 분권화 강화 경향
 - 자치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유한 문화발전증장기 전략을 수립할 권한 보유
- 세계적인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경향 및 지역문화재평가 활성화 경향
 -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상승

버금 요소

- 노동집약적 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세계경제의 변화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식 적용을 요구하는 서비스 경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 관광시장은 미래 성장 관측이 높은 시장, 관광의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관광객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5% 성장할 것으로 예측. 관광목적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 모험관광, 유람선 관광 등 신 관광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 선진국의 여가시

간 증가로 관광활동의 증가 전망. 최근 문화 관광의 세계적 소비자 유럽 관광객의 아르헨티나 방문의 증가 현상

- 국제 통신비용 및 관광비용의 감소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리적 위치가 약점이지만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문화도시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 다국적 기업, 특히 유럽계 기업의 문화 활동 지원 강화 경향
 - 기업홍보 및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한다.

위협

으뜸요소

- 중심국가로 경제력이 집중하는 현상
 - 중심국가들이 문화컨텐츠 생산을 주도해 개발도상국에 강요하게 될 것이다
- 대중매체의 독점화 강화 추세
 - 다국적 경제 그룹에 의해서 대중대체가 독점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문화 산업의 경제적 집중화 현상
 - 세계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음반 산업 및 출판 산업에서 독점에 가까운 집중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버금 요소

- 중심국가의 기술개발 통제 강화 경향
 - 문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의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국가 경제의 침체
 -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침체는 도시 내의 모든 경제 부문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높은 생활비
 -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이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 공공장소의 치안사정의 악화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얼마 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치안 회복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강점

으뜸요소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역사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 늘 언급되는 도시였다
 -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 시티, 리오 데 자네이루, 상파울루 등과 비교해왔고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과 견주어왔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시민 및 시민 단체의 창의성은 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 아르헨티나에서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도시이며 문화 자원이 가장 풍부한 도시이다
- 풍부한 유·무형의 도시 문화유산
 - 아르헨티나에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공공 박물관과 민간 박물관을 포괄하는 연계망을 구축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다양한 문화의 공급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양적 측면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화 재화 공급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영화, 연극, 박물관, 갤러리, 문화센터, 축제 등의 문화시설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화시장은 2천 2백만 명의 잠재적인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 1천만의 국내외 관광객과 1천 2백만(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인구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인구 포함)을 포함한 것이다
- 시 문화부의 비교적 높은 문화예산은 시정부가 시민 문화생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문화예산 비중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보다 높고 유럽의 몇몇 도시들보다 높다.

버금요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의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
 - 중산층(49%), 상류층(23%) 등 중상류층이 인구의 72%를 이룬다
- 전통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의 문화향유 경향이 높다
- 아르헨티나 국내 예술가와 국내 작품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다
 - 최근 수년간 국내 예술가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왔다. 영화 시장의 31%가 아르헨티나 영화를 선호하고 음반시장의 경우에 49%가 아르헨티나 음악을 선호한다(2000년 통계)
- 문화유산의 복원 및 활용을 위한 공공 투자에 대해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 아르헨티나 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역사적으로 높은 위상을 유지해왔다
 - 수도의 지위로 인해 지방에 비해서 도시의 위상이 높다

약점

으뜸요소

-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의 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명확하고 통합적인 전략의 부재
 - 아르헨티나 내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의 정체성은 현재까지 탕고의 도시로 한정되어왔다. 문화 정체성을 풍부하게 할 전략이 요구

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문화시설 분포의 지리적 불균형
 - 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시 남부에서 예술가들이 밀도 높게 거주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문화산업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에서 일할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

버금요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소재한 유·무형 문화재 보존 및 공공시설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재
- 시 유·무형 문화재 보호 법률의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관련 법률은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사후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문화시설에 접근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치안, 환경미화, 조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객과 관광객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레스토랑, 주점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 문화시설의 기술 수준이 낙후하다
 - 박물관, 도서관, 전통 영화관 등의 기술 수준이 열악하다.
- 새로운 경향의 예술을 위한 공간의 부재
 - 실험 예술 등의 발전·전파를 위한 전용 공간이 태부족하다.
- 예술 장르에 따라 문화향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 영화관람은 늘었지만 연극관람률은 줄었고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율도 감소했다.
- 예술 창작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포상제도의 개혁
- 공공행정기관의 관료주의 개선
- 문화 전파를 위한 공영대중매체의 부재

- 시 문화진흥기금의 설치 필요성
- 시 문화자원과 문화생산물 등록제도의 부재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소재한 공공·민간소유의 문화재 총람이 필요하다
- ‘문화적 천문대(Observatorio Cultural)’의 부재
 - 문화 활동의 경제적 영향, 문화부문의 고용창출, 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문화정책 수립하는 데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결론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어권에서 문화적 명성을 갖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문화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문화발전에 필요한 사상, 창의성, 활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협력이 부족하다.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문화를 도시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2010 문화비전-‘창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 및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 중심지”

2010 문화비전 7대 추진과제

사전과제 시민 참여로 문화비전을 구체화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단계 : 2002-2006 기반 구축기

제1과제 예술가를 양성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2과제 문화를 생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3과제 문화를 전파하고 향유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과제 시민 정체성을 만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2단계 : 2007-2010 라틴아메리카 및 스페인어권 세계로 나아가는 시기.

제5과제 라틴아메리카 속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6과제 스페인어권 세계 속의 부에노스아이레스

7대 추진과제 별 세부과제

사전과제-시민 참여로 문화비전을 구체화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문화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문화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광장을 제도화한다.
- <전략계획> '창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진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단을 마련한다.
- <전략계획>의 진행에 대해 문화계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제1단계 : 2002-2006

제1과제 예술가를 양성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예술 전반의 기성예술가와 신예 예술가를 두루 망라해 창작활동을 진흥한다.
- 과거의 창작물로서 문화재와 미래의 문화재가 될 현대의 창작물을 에 대한 보존 활동을 강화한다.
-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술교육기관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 교육 전략 내에 문화를 교육기관에서 예술교육의 진흥을 꾀한다.
- 공모를 통한 지원금 혹은 포상제도 등의 현행 심사제도를 개혁한다.

제2과제 문화를 생산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시 지역총생산에서 문화부문의 비율을 배가한다.

- 2010년까지 8년 동안 시 문화예산의 비율을 4%로 늘린다.
- 예술 전반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재조정한다.
- 민간문화종사자의 비율은 현 4%에서 10%로 늘린다.
- 아르헨티나 문화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출판과 음반 분야의 문화중소기업의 신규 창설을 지원한다.
- 도시 문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다양화한다.
- 도시 문화 활동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 법안을 제정한다.
- 공공·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창설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외국 영화의 로케이션 촬영지로 조성한다.
- 시청각매체 전담 시 정부기관을 창설하고 시청각문화를 진흥한다.
- 국가문화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민간 부문과의 공동제작 시스템을 도입한다.

제3과제 문화를 전파하고 향유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정보제공, 교통표지판, 가격 및 시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시민과 관객의 문화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 부대서비스를 강화해 문화 향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식당 및 주점의 서비스를 개선한다.
-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을 문화적으로 디자인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개선한다.
- 문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탕고, 영화, 공연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한다.
- 문화의 양적 성장과 다양한 문화의 생산을 진흥한다.
- 아르헨티나의 다른 도시들과 예술전시행사 교류를 활발히 전개한다.
- 공동도서관의 질적 수준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연극 관람률을 배가한다.
- 박물관 방문객 수를 세배로 늘린다.

- 시 교육부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관객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행사를 개최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지방 문화생산물의 유통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국가의 문화생산물들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축제와 문화행사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 시 관광부와 협력해 문화 관광 상품을 생산하고 문화달력을 만들어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제4과제 시민 정체성을 만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 문화시설을 균형적으로 확충해 시민 전체가 문화적 재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리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고 공공장소에서 문화 활동을 장려한다.
- 시 기념물 및 건축유산에 대한 보존 정책과 병행해 적극적인 활용정책을 도입하여 시의 상징물(랜드마크)로 만들고 시민의 자부심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활용한다.
- 무형문화재를 보존·전파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시민적 자부심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요소로 활용한다.
- 공공장소를 존중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제2단계 : 2007-2010

제5과제 라틴아메리카 속의 부에노스아이레스

- 라틴아메리카에서 예술가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 국제적인 성격의 대규모 문화 행사가 매년 혹은 격년에 한 번 씩 개최하여 문화 축제의 도시가 된다.
-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수준 높은 문화 관광의 도시로 성장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예술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 라틴아메리카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컨텐츠의 생산지로 성장한다.

제6과제 스페인어권 세계 속의 부에노스아이레스

- 스페인어 권 세계에서 예술가의 도시라는 명성을 보유한 도시로 성장한다.
- 국제적인 성격의 대규모 문화 행사가 매년 혹은 격년에 한 번 씩 개최하여 스페인어 권에서 문화 축제의 도시로 자리잡는다.
- 스페인어권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문화 관광의 도시로 성장한다.
- 스페인어권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예술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 스페인어권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컨텐츠의 생산지로 성장한다.
(주-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문화부는 2001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전략계획>을 발표하였음. 위 부록은 <전략계획>의 핵심 내용을 발췌·번역한 것임)

저자약력

김 규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 정 훈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문가)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 사례 분석 연구

발 행 일 2007년 12월

발 행 처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연 구 기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처 크리홍보(주)

ISBN :